

濟州道 北濟州郡 翰京面 高山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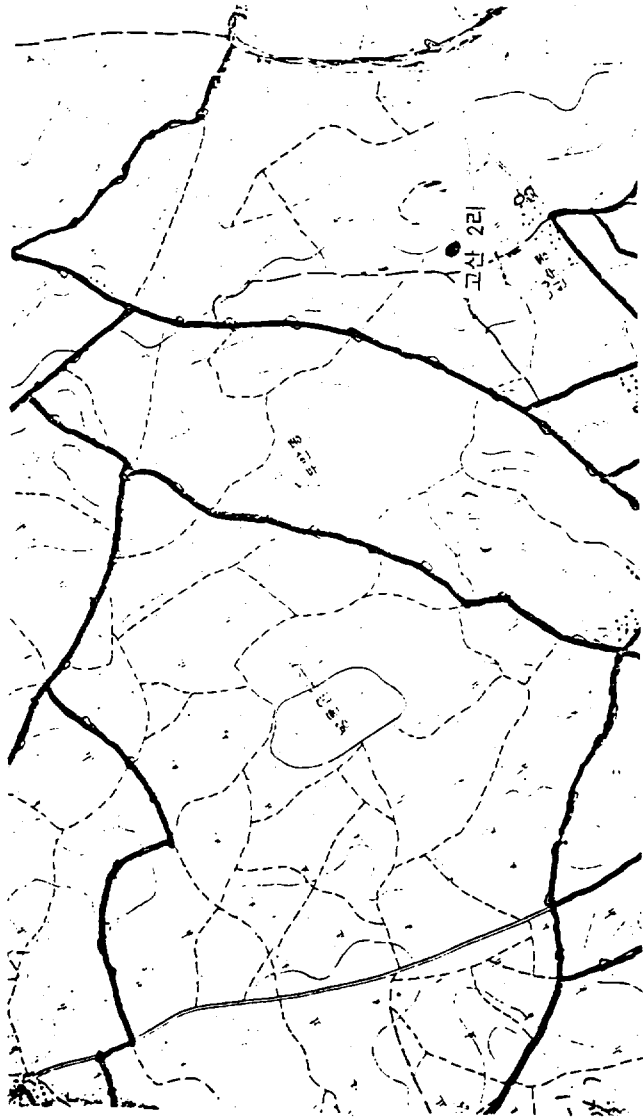
現地學術調查報告

(1989. 8. 2 ~ 1989. 8. 5)

1. 조사경위
2. 사회배경
3. 방 언
4. 민 요
5. 설 화
6. 신 양

(고산리 전경)

高山里地圖





學術調查 經緯

現地 學術調查는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에서 활용함으로써 이론과 실재를 견비하게 된다는 데서 그 意義를 찾을 수 있다.

본 학과의 현지 학술조사는 이러한 意義 아래, 方言·民謠·說話·信仰 등의 분야를 직접 조사함으로써 국어국문학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조사 참여자들이 단체 생활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게 한다는 목적으로 제주도 전역에 걸쳐 실시되어 왔다.

지금까지 본 학과의 조사지역을 보면, ① 南濟州郡 城山邑 蘭山里(1976.8) ②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1977.7) ③ 北濟州郡 涯月邑 納邑里(1978.8) ④ 南濟州郡 安德面 德修里(1981.7) ⑤ 北濟州郡 涯月邑 光令里(1983.8) ⑥ 北濟州郡 翰林邑 明月里(1984.8) ⑦ 南濟州郡 安德面 大坪里(1985.8) ⑧ 南濟州郡 城山邑 溫平里(1986.7) ⑨ 南濟州郡 南元邑 下禮里(1987.8) ⑩ 北濟州郡 舊左邑 金寧里(1988.7)이다.

제11회 현지 학술조사는 1989년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3박 4일 동안 北濟州郡 翰京面 高山里에서 실시하였다.

학술조사의 준비단계로 숙식·취사문제의 해결과 마을현황과 제보자 파악을 위해 4차례에 걸친 사전답사를 하였다.

이번 조사에는 國語教育科 교수님들과 재학생, 그리고 졸업한 선배님들이 참여하였다. 학술조사 지도는 梁重海·金泰琨(사회배경), 崔圭一(방언), 安成洙(설화), 梁淳珮·文聖淑(민요), 玄容駿(신앙) 교수님이 해주셨고 조사반원은 다음과 같다. (()속은 재학 학년임)

社會背景：夫錦淑(3), 金美伶(3), 高銀淑(3), 玄貞愛(2), 任恩希(1),
金蓮花(1)

方 言：高政相(4), 吳和眞(3), 金志倫(3), 高庚淑(2), 金鍾哲(1),
康元甲(1)

民 謠：韓昌勳(3), 玄承春(3), 邊溫和(3), 文熙懸(2), 金甫宣(2),
金亨美(1), 賓成熙(1), 康文榮(1)

說 話：全恩瑛(4), 許惠卿(3), 金靜寶(3), 李壽蘭(2), 玄惠貞(2),
吳修安(1), 玄景燧(1)

信 仰：李丞娥(3), 金明蘭(3), 吳惠英(3), 姜順姬(3), 金美姬(2),
文京姬(1), 金美京(1)

그리고 姜晶植, 任容麗, 吳昌桓 선배님을 비롯한 많은 선배님들이 조사에 도움을 주셨다. 여기서 이번 조사에 직·간접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선배님들께 감사드린다.

3박 4일간의 학술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일(8월2일) : 12시에 학교버스로 高山에 도착, 高山國民學校에 짐을 풀고, 교수님으로부터 마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반별로 예비조사를 겸한 조사활동을 폈다.

제2일(8월3일) : 첫날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제3일(8월4일) : 전일과 마찬가지로 반별로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하고 나서, 조사내용에 대한 자체 평가회를 가졌다.

제4일(8월5일) : 평가회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충하는데 중점을 두어 조사하고, 조사활동을 마무리하였다.

끝으로 이번 조사에 많은 도움을 주신 高山1·2리 里長님을 비롯한 마을 주민 여러분들과 高山國民學校 교장 선생님께 깊은 謝意를 표한다. 그리고, 報告書 정리에 수고가 많았던 반장 및 반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社 會 背 景

目 次

- I. 自然環境
- II. 歷史的 背景
- III. 人文概況
- IV. 產業構造

I. 自然環境

高山里는 행정구역상 濟州島 서부인 北濟州郡 翰京面 서남부에 위치한 부락이다. 남쪽으로 大靜邑과 이웃해 있고, 당오름과 수월봉이 그리 높지않게 솟아있을 뿐, 나머지는 평평한 소구릉이 길게 뻗어 있다.

한경면 면소재지인 新昌里에서 동쪽으로 약 4km 떨어져 있으며 근접마을로는 북쪽에 龍水里와 龍塘里가 있고 동북쪽에 樂泉, 楮指, 清水, 山陽里로 圍繞되어 있으며 남서쪽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해방후 정부수립과 동시에 행정구역개편이 실시된 이 마을은 크게 高山1里와 高山2里로 나누어져 있다.

고산1리에는 자구내, 한장동, 영도동, 안좌동, 중상동, 중하동, 서문동이 있으며 고산2리에는 천내동, 천외동, 신동, 신수동, 칠전동, 전담동이 있다.

고산1리는 총면적이 868.9ha로서 경지면적이 691.5ha, 고산2리는 경지면적이 544ha로 '고산평야'라고 불릴만큼 경작지는 상당히 넓은 편이다.

교통은 매 15분마다 서회선 버스가 운행되므로, 어려움은 없다. 생활필수품은 마을안에서 열리는 오일시장이나 마을에 있는 상점 등을 이용하므로 불편한 점은 없다고 한다.

용수는 동네마다 우물물이 있어 식수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별 걱정이 없었다고 한다. 특히 수월봉의 벼랑곳곳에서 흘러내리는 '녹고물'은 약수터로 널리 알려져 있다.

II. 歷史的 背景¹⁾

高麗 忠烈王 22年(1295)에 '耽羅'를 濟州로 고쳐 牧使와 判官을 두었으며 東·西道縣을 설치 하였다.

高麗 忠烈王 26年(1300) 西道縣에 遮歸縣村(現 高山里)을 두어 戶長 3人, 城上 1人으로 다스리게 하였다.

朝鮮 太宗16年(1416)에 都按撫使 吳滉은 前判官 張合과 함께 건의하여 漢拏山을 중심으로 山北과 山南으로 나누어 山北에서 濟州牧을 두고 東·西道縣을 設置하여 東을 정의현, 西는 대정현을 각각 설치하여 縣監을 두었는데 "遮歸縣村"은 大靜縣 右面에 소속하였고 마을 이름은 '遮歸'라고 불러 왔으며 한때 '堂山里'라 부른적도 있었으나 1800년경부터 '高山里'라 불렀다.

純宗 4年(隆熙4年 1910) 大靜, 旌義 兩面을 複合하여 濟州郡에 合郡함에 따라 濟州郡 舊右面에 속하였고, 왜정때(1913)에는 全羅南道 濟州郡 舊右面이 되었다. 1935年 全南 濟州島 翰林面으로 개칭되어 4區로 나누었다. 광복후(1946)에 道制가 실시되면서 北濟州郡 翰林面이 되고 또 邑으로 승격되면서 分面이 되어(1956) 翰京面에 속하게 되어 1, 2, 3, 4區를 포함하고 1, 2區는 高山1

1) 고산국민학교, 고산향토지, 성심인쇄사, 1987.

高山里 學術調查報告

里 3, 4區는 高山 2里로 1916년부터 분리하여 現在에 이르게 되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高山里의 設村年代는 遮歸縣村을 설치한 高麗忠烈王 26年(1300)으로 보아 700여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移住하여 와서 어느 곳에서 먼저 說村을 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후일의 과제로 삼는다.

高山里는 각 洞마다 전해 내려오는 지명유래가 있다. 고산리 지명유래는 다음과 같다.

1) 水月峰(옛이름 高山) : 1800년까지는 高山이라고 불러왔었는데 수월봉 고지남(호는 水月이고 이름은 高智男)의 후손들이 수월공묘를 잃어 버렸는데 그 孫子 高義福의 墓(濟州鄕校의 敷地에 있었는데, 향교 증건으로 인하여 이장하게 됨)를 동위 2年(1865)에 “高山”에 移墓하고 水月公의 호를 따서 水月岳이라고 부르고 翁희 4年(1910) 水月公의 慰靈碑를 세우면서 水月峰이라 새겼다.

2) 포(瓦浦지새개~龍水浦口) : 옛날에 기와를 만들었던 곳으로서 陶窯地가 있고 기와장이 많이 나온다. 이곳은 130여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생활도구의 하나인 用器를 만들었던 곳으로서 우리 조상들의 생활수단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3) 붉은내(龍水里境~堂山里 北쪽으로 바다에 흐르는 내) : 李朝 太宗 18年(1418)에 왜적이 용수리 경내에 있는 ‘군령개’로 침입하여 이곳에서 격전끝에 물리쳤으나 시체가 산더미로 쌓이고 피가 흘러 내를 이루었다고 해서 ‘붉은내’라고 한다.

4) 매골동산(現 龍水里境 忠魂墓地일대, 매고무동산) : 붉은내의 싸움에서 숨진 많은 戰死者의 뼈를 묻었다고 해서 ‘매골동산’이라 하였다.

5) 병둔지(兵屯池 現 龍水境內 貯水池) : 왜적을 막기 위해 군사가 주둔해서 못 물을 사용했다고 해서 ‘병둔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6) 왕지케(王趾) : 현 용수리 경내의 忠魂基地와 저수지 사이 耽羅國時代의 왕자가 살았다는 곳이라고 해서 “왕지케”라고 부르게 되었다.

7) 遮歸(遮歸縣 : 高山里): 예로부터 전하는 말에 高麗때 宋나라의 胡宗묘이 濟

州島의 山川이 너무 좋아서 영웅호걸이 많이 태어나서 大國(中國)에 반기를 들 것이라 생각하고 本島의 땅맥(地血)을 끊거나 눌러 버리고서 배를 띄워서 쪽 바다로 돌아갈 때, 한라산 수호신이 사나운 독수리로 변신해 胡宗묘이 탄 배의 돛대 위에 앉아 大風을 불러 일으켜 遮歸島 岩石 사이에 배를 쳐부서 침몰시켜 돌아가지 못하게 막았다.

조정에서는 그 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 신령을 모신당이 遮歸堂이며 胡宗묘이 돌아가는 것을 막았다 하여 遮歸라 부르게 되었다.

8) 자구내(遮歸川) : 본시 “遮歸에 있는 河川”이란 데서 「차컷내」라 불리우던 것이 차차 訛傳하여 「자구내」라 호칭하였다.

9) 漢場洞「한장밭」(廣田) : 이 동네의 地帶가 한없이 넓고 크다는데서 옛부터 「한장밭」이라 불리우던 것이 후에 한자표기에 의해 漢場洞이라 호칭하였다.

10) 七田洞「일곱도루」 : 밭이 일곱판이 되는 동네라는데서 「일곱다루」(다루→다르→작은밭)라 불리워 졌는데 후에 한자표기에 의해 七田洞이라 호칭하였다.

11) 新水洞「신물」 : 이 동네 앞에는 새로이 신설한 큰 못(池)이 있어 洞名을 「신물」이라 불리웠으나 후에 한자 표기에 의해 新水洞이라 호칭하였다.

12) 新洞「새동네」 : 본시 이 동네는 新水洞과 七田洞의 두 부락 밑에서 새로이 이루어진 동네라는데서 「새동네」라 불리워졌으나 후에 한자표기에 의해 新洞 또는 「신동밭」이라 호칭하였다.

13) 錢畚洞「도논」 : 본시 이 동네는 논밭이 한판이 있어 귀하게 여겨 洞名을 「도논」이라 불리웠는데 후에 한자표기에 의해 田畚洞이라 호칭하였다.

14) 斗滿洞, 斗水洞「두머니물」 : 예로부터 사람이 살아 古村이나 地形이 말과 같이 壅塞하였기로 洞名을 「두머니물」이라 불리웠는데 후에 한자표기에 의해 斗滿洞 또는 斗水洞이라 호칭하였다.

15) 堂(唐)山峰「당오름」 : 예로부터 이 산에는 堂이 있어 山名이 「당오름」이라 불리워졌으나 광복후에 한자표기에 의해 (唐)山峰이라 호칭하였다.

16) 넓은개「廣浦」 : 本里의 唐山峰과 水月峰에 이르기까지 浦口가 넓어 옛

부터 「넓은개」(넓은 포구)라 불리웠다.

17) 영알 : 本里의 바닷가의 높은 언덕 밑이라는데서 「영알」 「언덕밑」이라 호칭하였다.

18) 눈섬「臥島」: 이 섬의 모양이 마치 사람이 누워있는 것과 같다는데서 「눈섬」(누운섬)이라 불리우던 것이 후에 한자표기에 의해 臥島라 호칭하였다.

19) 황넛물 : 河川의 못이라는 데서 예로부터 이 못(池)을 「황넛물」이라 호칭 하였다.

20) 언물 : 본시 이 못(池)은 生水가 솟아 올라 물이 몹시 차다는 데서 「언물」(찬물)이라 호칭하였다.

21) 고사리 오름「괴사리 오름」: 이 동산의 地形이 마치 고양이 누워있는 것과 흡사하다는데서 처음 「괴사리 오름」이라 불리우던 것이 후에 訛傳되어 「고사리 오름」으로 호칭되었다.

22) 조도리 동산 : 본시 이 동산은 앞에 水月峰이 있어 「달 위에 쫓인 별의 곶」이라는데서 「조도리동산」이라 불리우나 후에 절을 짓게 됨에 따라 「月城寺」라 호칭하였다.

Ⅲ. 人 文 概 況

고산리는 누가, 언제, 어디서 移住하여 와서 어느 곳에서 먼저 設村을 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없다. 한때 '遮歸', '신두모리', '堂山里'라고 부른 적도 있었으나 1800년경부터 '高山里'라 불렸으며 해방후 정부수립과 동시에 행정구역개편이 실시되었다.

고산리의 현재 가구수는 고산1리가 725세대에 2,952명이, 고산2리는 292세대에 1,227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들은 주로 농업에 의존하며 보리, 감자 등 식량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또 農閑期에는 해산물을 캐어 家計를 꾸려나가기도 한다. <표1>

<표1> 가구수 및 인구수

(단위 : 가구, 명)

구 분 리 별	가 구 수				인 구 수		
	계	농 가	어 가	비농가	계	남	여
고산1리	725	629	6	90	2,952	1,430	1,522
고산2리	292	277	-	15	1,227	572	655

(1988. 12. 현재. 한경면사무소 제공)

고산리 주민의 성씨는 모두 47성(姓)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씨 분포는 거의 김씨, 이씨, 고씨, 강씨가 전체 1,017가호의 반수이상(613가호)을 차지하고 있다. <표2>, <표3>

<표2> 고산1리 가호별 성씨분포

(단위 : 가구)

계	김	이	고	강	기 타
725	164	103	93	75	290

<표3> 고산2리 가호별 성씨분포

(단위 : 가구)

계	고	김	이	강	기 타
292	72	53	29	24	114

<표2><표3> : (1988. 12. 현재. 고산리사무소 제공)

高山里 學術調查報告

교육기관으로는 유아원 1개소, 고산국민학교 병설유치원, 1915년에 설립된 고산국교와 재일교포들의 기부금으로 세워진 고산중학교(1953), 고산상고(1969)가 있다. 교육환경은 타마을에 비해 좋은 편이며 학교와 가정에서의 학구열은 대단히 높다. <표4>

<표4> 학생현황

구 성 별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1	2	3	4	5	6	1	2	3	1	2	3
남	36	32	28	37	27	39	58	60	54	38	35	56
여	37	25	30	40	27	34	40	59	52	75	82	70
계	73	57	58	77	54	73	98	119	106	113	117	126

(1989. 8. 현재, 고산국민학교, 고산중학교, 고산상업고등학교 계공)

문화시설에 있어서도 골고루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별 어려운 점은 없다. 전기시설, 수도시설이 100%로 완비되어 있으며 1963년 저수지 축조 및 수로공사 이후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산리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1985년에 착공되어 1986년 상반기에 완공을 보아 시원하게 트인 도로와 잘 정비된 거리는 소도시를 연상케 한다.

더우기 국민관광 후보지로 지정된 자구내 일대 차귀도 와도와 함께 당산봉, 수월봉의 개발과 해안도로 확장정비 포장에 대한 기대속에 2000년대를 내다보고 있다.

〈표5〉 문화시설보급상황

품목 리별	전화	신문	전축	칼라 T·V	흑백 T V	VTR	피아노	세탁기	선풍기	냉장고	오 토 바 이
1리	87	527	321	492	127	214	5	312	513	480	127
2리	139	50	125	200	20	15	-	35	150	196	25

(1989. 8. 현재. 고산리사무소 제공)

이 마을에는 ‘본향당’, ‘개당’, ‘영감당’을 비롯한 5개의 神堂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민들은 이중·삼중적인 신앙관계를 맺고 있으며 사찰로는 월성사, 천안사, 수덕사가 있어 타지역의 주민들이 불공을 드리러 온다고 한다. 제주도에서 관음사 다음으로 큰 월성사는 신도수가 약 300여명으로 상당수에 달한다. 그리고 천주교 신도수는 200여명쯤으로 남자 신도수와 여자 신도수의 비율이 1 : 4로 여자신도가 많다.²⁾ 또한 기독교 신도수는 150여명에 달한다.³⁾

마을기관은 공식단체로 노인회, 부인회, 청년회, 어촌계 등이 있으며 친목도모로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외에도 비공식단체가 있는데 각 동네별로 친목계 등이 조직되어 있어 화합이 잘 이루어진다. 특히 부녀회 운영이 매우 활발하다.

2) 김성철 제보

3) 현영림, 제주도 기독교 개신교 분포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1989.

IV. 産業構造

고산리의 주된 산업은 농업이 전부이지만 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가축을 기르고 농한기에는 해산물을 캐어 家計를 꾸려 나간다.

농업인 경우 광활한 沃土를 바탕으로 보리, 고구마, 감자 등 식량작물이 대량 생산된다. 특히 겨울감자인 경우 연간수입액이 3억에 달할 정도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⁴⁾

<표6> 토지이용현황

(단위 : ha)

구분 리별	경 지 면 적				
	계	전	답	임 야	기 타
고산1리	691.5	621	3	60	7.5
고산2리	544	415	8	60.2	60.8

(1989. 8. 현재, 고산리사무소 제공)

<표7> 소득현황

(단위 : ha)

구분 리별	총 소 득 액(천원)		호 당 소 득(천원)
	농 업	농 외	'88
고산1리	432,802	12,070	6,045
고산2리	320,485	33,530	6,641

(1988. 12. 현재, 고산리사무소 제공)

4) 1989. 8. 현재 고산리사무소제공

최근에는 대단위로 농지를 정리하고 機械化 營農의 기틀을 다지면서 해안지대에서는 쌀과 보리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

가축 사육 현황을 보면 <표8>과 같다.

<표8> 가축사육현황

(단위 : 마리)

구 분	소	돼 지	사슴	닭	계
고산1리	62	50	2	500	60
고산2리	70	50	-	-	40

(1989. 8. 현재, 고산리사무소 제공)

수산업은 한림면에 속해 있을 때만 해도 遮歸島, 눈섬과 마을 포구를 이용한 고기잡이가 활발했었다. 특히 이들 섬과 섬사이의 潮水는 급류를 이뤄 위험하나 여러 종류의 어류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 어망을 이용한 근해어업이 다소 활기를 띠었었다.

「이 섬에는 얼마전까지만해도 2가구가 들어서 풍랑으로 쫓겨드는 어부들을 상대로 음식과 술을 팔아 왔다」는 口傳이 지난날 근해어업의 성행을 암시해 준다.

그러나 오늘날 고산리의 수산업은 해녀작업에 의존한 소라·뿔 등의 양식사업과 패류생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해녀는 노령화 추세에 있으며 대부분의 학력은 국졸 이하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표9>

<표9> 해녀현황

(단위 : 명)

계	연 령				학 력			
	20대	30대	40대	50대	무 학	국 졸	중 졸	고 이 졸 상
95	-	11	25	59	31	30	24	10

(1989. 8. 현재, 고산리어촌계조합 제공)

高山里 學術調查報告

이러한 해산물 채취로 해녀의 일년 총 생산액은 약 2억원에 달한다. 못인 경우 약 2천만원, 패류인 경우에는 약 1억 7천 4백만원의 높은 소득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해녀의 중독성 약물(뇌선, 사리돈 등)의 복용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해녀들의 건강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다.

농기계 보급은 경운기, 동력분무기, 동력탈곡기 등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경작과 수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0>

<표10> 농기계 보유현황

(단위 : 대)

구 리 별	동력경운기	동력분무기	동력탈곡기	트랙터	양수기
고산1리	202	133	14	8	3
고산2리	162	107	20	1	11

(1988. 12. 현재 .한경면사무소 제공)

본보고서 작성에는

고산국민학교, 고산향토지, 성심인쇄사, 1987.

진상기, 남국의 지명유래, 1975.

제주대 국어교육과, 현지학술조사방법론, 경신인쇄사, 1987. 등이 참조되었다.

方 言

목 차

- | | |
|--------|---------------|
| I. 명사류 | 5. 가축·곤충·새 |
| 1. 농업 | II. 용언류 |
| 2. 어업 | 1. 연결어미 결합(1) |
| 3. 가사 | 2. 연결어미 결합(2) |
| 4. 가옥 | 3. 종결어미결합 |

I. 名 詞 類

1. 農 業

1) 곡류

- ① 보리 : 맥주보리, 술오리, 질오리, 절보리
- ② 밀 : 밀
- ③ 쌀 : 산디, 나룩(나룩)
- ④ 콩 : 머드레콩, 상콩, 죽은콩, 강낭콩, 두불콩, 돛비
- ⑤ 메밀 : 멧멀
- ⑥ 팥 : 풀
- ⑦ 녹두 : ?

高山里 學術調查報告

- ⑧ 깨 : 껌
- ⑨ 기장 : 지장
- ⑩ 조 : 서숙

모인조, 노랑조, 호린조, 꺼멍조

- ⑪ 수수 : 빗대죽, 새당대죽, 쓸대죽

※ 고고리 : 곡식의 끝가지에 달린 열매. 조코고리, 보릿고고리, 나뚫고고리.

2) 채소(습키)

- ① 무우 : 무수, 늪배
- ② 나물 : 누물
아기누물, 동지누물, 갯누물
- ③ 배추
- ④ 부추 : 새우리
- ⑤ 파, 마늘 : 파마늘, 드룻마늘, 꿩마늘
- ⑥ 고추 : 고치, 익은고치, 선고치
- ⑦ 가지
- ⑧ 오이 : 웨, 물웨, 춤웨
- ⑨ 깻잎 : 유잎, 들췌넝
- ⑩ 시금치 : 시금추
- ⑪ 버섯 : 버섯(버섯)
물똥버섯, 좃버섯, 소낭버섯, 벨버섯(못먹는 거), 초기
- ⑫ 양애 : 양애불리
- ⑬ 난쟁이 : 난지영 허곡. 국끓영 먹는 거.
- ⑭ 배채기 : 누물 닦은 거.
- ⑮ 썩 : 숙
- ⑯ 돛쇠 : 도새기도 먹곡 사람도 먹곡 허는 거. 데왕 무치민 그렇게 맛 이서.

⑰ 감자 : 지슬

⑱ 고구마 : 감채

3) 풀, 열매

① 봄에 나는 풀 : 대오리, 짐풀, ㄱ시락풀, 절마리

② 여름에 나는 풀 : 재완지, 상고지, 보쿨, 건각채, 벤데쿨, 쇠비눔, 쇠비눔,
개비눔

③ 기타 : 근곽채, 참수세, 천상쿨, 절란지, 물모작풀, 짐풀, 살마, 마쭈,
꼭쭈, 고냉이할미쿨(시에미쿨), 가마귀외쭈, 소앵이, 빈네, 쇠터
럭검질, 물상구지, 역귀, 난쟁이, 눈벨레기, 저슬살이, 물룻, 물
피, 데우리, ㄱ랏, 메움쿨, 조완이 등

④ 열매 : 탈, 삼동, 벨낭귀, 구간(꺫간) 잘귀, 줄쟁이(유름), 보리볼레,
풀볼레, 멀뤼, 고양이멀뤼, 등당멀뤼, 복숭개, 어영뒤(앵두)

4) 농기구

① 삽 : 갈래죽

② 괭이 : 광이

③ 호미 : 골쟁이

④ 낫 : 호미, 골 각지(호미보다 작은 것)

⑤ 도끼 : 도치(大), 자귀(小)

⑥ 자루 : 밀망텅이

맥(大), 착부찌(小)

⑦ 괭채 : 너덩괭채, 꼭괭채, 대괭채

⑧ 멍석 : ㄱ랫방석(똥글락 현 거), 멍석

⑨ 솥돌 : 신탈

⑩ 쇠스랑 : 쇠시랑

⑪ 바가지 : 줍팍, 대악세기

高山里 學術調查報告

- ⑫ 지계 : 가지지계 (뭍꿀망지계)
- ⑬ 채 : 대채, 대거름채, 거름채, ㄱ는채, 푸는채
- ⑭ 보섭 : 영 질게 낭허영 발 영 디디민 중간에 영 발디명 쪽 불라그네 허는 거. 따비영 했주.
- ⑮ 후꾸 : 걸름 올리는 거.
- ⑯ 당그네 : 날래 널른 밀곡 땡기는 거.
- ⑰ 도리깨 : 도깨로 두드리곡. 에야홍 에야홍 소리허멍 그 도깨로 막 태작을 허주게.
- ⑱ 클 : 나뭇클, 보리클, 보리클은 영금허게 만들곡, 나뭇클은 삐작허게 만든거주.
- ⑲ 잔디 : 예 쇠 메영 발갈아났주.
- ⑳ 나데 : 낭 끊을 때.
- ㉑ 메 : 조근메, 큰 메
조근 건 끌로 허영 돌벌르곡. 큰 메로 두드리는 건 바로 그냥 둘 강 두드령 탁 벌르는 거.
- ㉒ 벤줄레 : 깨도 일루곡허는 거.
- ㉓ 대패 : 대패로 깎았주게.
- ㉔ 톱
- ㉕ 섬비 : 섬비질 허는 거.
- ㉖ 설피 : 민딱허게 빙에도 깨지곡. 설피질 허는 거.
- ㉗ 서울레 : 멘작허게 허젠허민 끄시는 거, 나뭇발에.
- ㉘ 얼망이(얼맹이) : 보리질르는 거.
- ㉙ 지계 : 가지지계, 뭍꿀망지계
- ㉚ 호랭이(호롱이) : 새끼꼬을 때 줄 놓는 것.
- ㉛ 톱걸름착
- ㉜ 둥고량착

2. 漁業

1) 어류

- ① 문어 : 불꾸럭
- ② ㄹ생이
- ③ 어랭이, 돌어랭이
- ④ 감파귀
- ⑤ 매역치
- ⑥ 손치
- ⑦ 우럭 : 황우럭, 돌우럭, 검테우럭, 서드럭
- ⑧ 볼락
- ⑨ 보들레기
- ⑩ 수어기 : 돌고래. 물에 뜨는 거.
- ⑪ 상어 : 상애
죽상애, 춤상애, 팡상이(가시동바리), 모도리(상애 닮은 거)
- ⑫ 출라니: 존 존헌 괴기계.
(조편 다리, 존다니, 개상이)
- ⑬ 물치(물쟁)
- ⑭ 복쟁이 : 밀복쟁이, 돌복쟁이
- ⑮ 오징어 : 오징애
- ⑯ 민마구리(멩마구리)
- ⑰ 낙지

※ 바룻괴기 : 물르른 다 바룻괴기렌 허여.

2) 물때

음력 1일 : 일곱물

2일 : 여덟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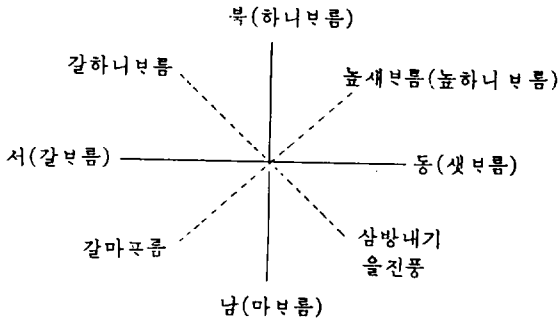
3일 : 아홉물

高山里 學術調查報告

- 4일 : 열물
- 5일 : 열흔물
- 6일 : 막물(열두물)
- 7일 : 췌기
- 8일 : 한췌기(아끈췌기)
- 9일 : 막췌기(개므슴)
- 10일 : 혼물
- 11일 : 두물
- 12일 : 서물
- 13일 : 너물
- 14일 : 다섯물
- 15일 : 여섯물

여긴 그름 여섯 보름 여섯.

3) 바람(보름)



※ 고산지방에서 보면 동남쪽에 산방산이 위치한다. 따라서 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삼방내기라고 한다.

4) 조개와 조류

- ① 전복 : 좁북

마드레 : 질 늑작허게 불영 태어나는 거.

암천복 : 훗살 동그릇허게 현 거.

소천복 : 동끄랑현 늑.

- ② 구재기
- ③ 오분자귀
- ④ 해삼 : 해습, 미
- ⑤ 미역
- ⑥ 천추(우미)
- ⑦ 성계 : 구살, 귀
- ⑧ 숨 : 까믄 노랑현 거 나오는 거.
- ⑨ 뭍 : 춤뭍, 굿인뭍
- ⑩ 보말 : 먹보말, 수드리, 곰생이, 매옹이, 문대기, 원보말
- ⑪ 멩계 : 멩지, 머묵

5) 해녀도구, 기타

- ① 속곳(쉬견)
- ② 물적삼
- ③ 소증기
- ④ 비창 : 생복잡을 때
- ⑤ 골갱이 : 오분자귀 땀 때. 호맹이, 까꾸리가 생기기 전에 사용.
- ⑥ 까꾸리 : 호맹이 닳은 거.
- ⑦ 눈
- ⑧ 소살
- ⑨ 태왁 : 지금은 두렁박
- ⑩ 망시리 : 태왁 밑에 돌아맹 놓는 거. 큰 거.
- ⑪ 조래기 : 족은 거.
- ⑫ 망시릿어음 : 망시리 돌아매는 거.

⑬ 숨비소리

⑭ 해너 : 줌네

큰 줌네(상군)

중 줌네(중군)

힘배우는 아이덜.

3. 家 事

1) 음식

ㄱ. 떡류

① 침떡 ② 조침떡 ③ 은절미(부말로 만든 떡) ④ 곤떡 ⑤ 돌래떡(막말돌래, 조돌래, 고적돌래), ⑥ 상웨떡(밀가루로 만든 거) ⑦ 삼메떡(보리로 만든거) ⑧ 췌기떡 ⑨ 제펜 ⑩ 반제펜(좁쌀에 곤쌀 섞은 거) ⑪ 시리떡 ⑫ 사발떡(굿할 때 허는 거) ⑬ 솔벤(동글랑한 거) ⑭ 절벤(반돌같이 현 거) ⑮ 새미떡 ⑯ 빈떡 ⑰ 오메기떡(오마기떡, 솔떡, 막걸리할 때) ⑱ 왜밀가루떡(요즘 밀가루로 만든 떡) ⑲ 숙떡

※ 둥그랗거나 반달모양의 떡(솔벤, 절벤, 새미떡)은 하늘의 이치를 나타내고, 평평하고 넓적한 모양의 떡(침떡, 은절미, 제펜, 반제펜)은 땅의 이치를 나타낸다고 한다.

ㄴ. 밥류

① 보리밥

② 반지기(좁쌀반지기밥) : 보리쌀에 이제 굴 섞어그네 좁쌀 호꿈 낱 이제 부들부들허게 행.

③ 곤밥(나록쌀밥허영 멧밥허곡계)

④ 조팍(서숙밥)

⑤ 소래기밥(좁쌀밥) : 보리쌀 쫄 때 중간에 부서진 거, 쫄아진 거. 전 좁쌀밥.

⑥ 오곡밥

⑦ 산디솔밥

ㄷ. 범벅류

① 물룻범벅 : 막 송년진 때. 물룻에 툫 낱막 삶양 혼 사흘을 막 물 부꾸아 불멍 삶으민 끈물이 다 버려불머는 그디는 들끔허민 보리볶양 보리게역 해서 그눔 허쳐서 먹었주기.

② 툫범벅

③ 솔대죽범벅

④ 숙범벅

⑤ 푸래범벅

⑥ 모밀범벅

⑦ 대죽범벅

⑧ 는쟁이범벅 : 모밀 점져나민 그디 내령은 는쟁이 7루로 만든 범벅.

⑨ 밀핍범벅

⑩ 조핍범벅

ㄹ. 국류

① 배추국

② 늪배국(무수국)

③ 머역(미역)국

④ 뽕국

⑤ 장국

⑥ 된장국

⑦ 호박국

⑧ 푸래국

⑨ 콩국

⑩ 배채기국

⑪ 찜마농국

⑫ 간잘귀국

⑬ 물외냉국

⑭ 가시리국 : 가시린 싯주계. 가시리도 꼭래에 섞영 국허민 경 맛좋아.

⑮ 머역새국 : 돌에 요만씩 길쭉길쭉 나불나불 나는 거. 그거 미역담은 거주계.

⑯ 넘피국 : 미역새보다 호끔 꼬실락꼬실락허영 가쟁이 불으멍 올라오는 거.

⑰ 계자릿국 : 국도 허영 먹국 무쳐도 먹곡

⑱ 들굽국 : 이 산데레 요 소낭발테레 출왈테레 가민 들굽낭 들굽 곡대기로 적어당 국허영 데왕 먹곡.

⑲ 계영(거영)국 : 제사할 때.

ㅁ. 죽류

① 콩죽

② 흰죽(곤죽)

③ (곤)죽물 : 곤죽물 나 주라.

④ 꿩죽

⑤ 녹디죽

⑥ 풀죽

⑦ 국죽 : 모인 줍쌀 낱 쓴 거.

⑧ 호박잎죽 : 보리밥 남은 거에 호박잎 낱 죽헌 거.

⑨ 좁○죽

ㅂ. 술류

① 청주

② 탁배기 : 막걸리 허영 익영 드큰 막 켈때는 탁배기가 되곡 드큰 골라지민 우의 청주가 드큰허게 짓누렁허게 청주. 청주 토로 거러그네 청주 드리라, 막걸리 드리라.

③ 감주 : 줍쌀 허여그네 감주 허여낱 딸리민 그제 감주주기계. 조허곡 골허곡 밥허영 쉬엇당 부글부글 괴영 이제 호끔 동강 물낱 밥허영 식어가민

골냥 이제 물냥 저성 그레 골냥 놔두민 사름허게 이제 물룻되민 그전에
이제 막 물괴영 걸렁 딸리민 그게 감주. 막 딸리민 옛되곡 더 딸리민 감
주되곡.

④ 막걸리

⑤ 불래술

⑥ 삼동술

⑦ 벨랑귀술

⑧ 콧냥으름술(콧냥으름=콧가시으름)

ㅅ. 김치류

① 늪뵈짐치 ② 츠마기짐치(무수 이파리) ③ 섭늪물짐치 ④ 동지짐치 ⑤ 갯
늪물짐치 ⑥ 쫘마농짐치 ⑦ 물짐치

ㅇ. 기름류

① 늪뵈치름

② 께지름

③ 유지름 : 들께지름

④ 유채지름

⑤ 당배치름 : 이제 저 저세기게, 김치들 담양 먹는 거, 동지들 산 거.

⑥ 돔박지름

⑦ 피만지름 : 불싸는 지름. 먹엇당 죽젠. 흰 피만지는 죽도 꿩영 먹어,
붉은 피만지는 먹으면 곧 죽어.

⑧ 콩지름

⑨ 갯늪물지름

ㅈ. 기타음식

① 두부 : 돔비

물돔비, 모른 돔비

② 순다리 : 밥 쉰 것에 누룩냥 솥양 먹는 순다리.

③ 칼국수 : 칼국

밀ㄱ루칼국, 좁쌀칼국

- ④ 죽배기
- ⑤ 뼈때기
- ⑥ 장애치(마농지)

2) 의복

ㄱ. 모자류

- ① 샓갓(女)
- ② 밀낭패랭이(女)
- ③ 정동벌립(뽕갓) : 정동줄로 짜 놓은 거주게, 초석짜듯이(여름, 男).
- ④ 후양 : 추울 때 딱시게. 겨울에 쓰는 거(男).
- ⑤ 풍둥이(풍뎡이) : 후양보다 고급스러운 거.
- ⑥ 털벌립 : 무신 쇠터럭담은 걸로 헌 거.
- ⑦ 방립 : 방립이엔 헌진 상재들 패랭이 담은 거 써났주.그건 스님덜토 썩 다니극 허는 방립이고. 스님덜토 썩 어디 출장가젠허민 먼디 추접헌 거 베리지 말젠 영 쓰는 거. 샓갓담은 거.
- ⑧ 감티 : 어린 아기덜 써는 거. 더맹이 도시게.
- ⑨ 초갱이 : 비올 때 쓰는 모자.
- ⑩ 전대 : 상재가 머리에 써는 거.
남자전대가 딱나고 여자전대가 딱나고.
- ⑪ 두건 : 편당들이 써는 거. 상재만 전대써주게.
- ⑫ 입재 : 갓
- ⑬ 탕전
- ⑭ 말근(말관) : 탕전보다 큰 것.
- ⑮ 관디 : 혼례식 때 신랑이 쓰는 모자.

ㄴ. 머리장식

- ① 머리창 : 상 당했을 때 편에 하얀 천조각을 끼워 머리에 지니고 다니는 것.
- ② 비녀 : 빈네

- ③ 족도리
- ④ 머리건지(鬚머리예집) : 혼례식 때 신부머리에 다른 머리장식을 올려놓은 것.

- ⑤ 땡기, 갑소땡기
- ⑥ 상통(통)이
- ⑦ 멩긴 : 상통찬 위에 갖쓰기 전에 쓰는 것.

ㄷ. 예복·상복

- ① 시미웃 : 남자상제의 상복
- ② 죽냥(직냥) : 시미웃 우의 남자상제가 입는 거.
- ③ 명지장옷
- ④ 사모관테(사모관디)
- ⑤ 콰지
- ⑥ 띠

※ 남자 혼례복 입는 순서

질 처음은 두루막 입어낵 이제 콰지 입엉 그 우테테 관디 입엉 우의 빨
돋은 관디쓰곡.

ㄹ. 신발류

- ① 관디신
- ② 초신 : 짝세기, 서꾸(짚으로 꼬아 만든 것)
- ③ 창신
- ④ 남신(비올 때)
- ⑤ 미투리(신짝신)
- ⑥ 비빔작신

ㅁ. 옷감류

- ① 삼베
- ② 모시
- ③ 멩지

高山里 學術調查報告

- ④ 미녕 : 미녕으로 이딧 갈중이도 만들곡
- ⑤ 멘네
- ⑥ 광목, 옥영목, 직광목
- ⑦ 조패 : 멩지 버금에 입는 죽음에 입는 옷
- ⑧ 마패 : 그건 훙은 거.
- ⑨ 광패 : 나비 이만이 넓은 거.
- ⑩ 초륙 : 퍼렁헌 물들인 거.
- ⑪ 즈지 : 멩지에 벌건 물들인 거.
- ⑫ 양단, 모빈단, 공단(츄기지), 법단

3) 가사도구

ㄱ. 식기

- ① 낭푼이
- ② 낭그릇
- ③ 장중지 : 장거렁 먹는 거.
- ④ 수박귀 : 놋그릇인디, 우 호끔 쫘아지고 알 호끔 쫘아지고 가운던 호끔 영 발썩헌 거. 밥거렁 먹는 거.
- ⑤ 놋대접 : 제영거리는 거.
- ⑥ 접시 : 탕쉬같은 건 접시에 거리곡.
- ⑦ 돔배
- ⑧ 낭정반
- ⑨ 차롱
- ⑩ 젓통
- ⑪ 젓가락(즈봄)
- ⑫ 숟가락
- ⑬ 남자 : 국거리는 거.
- ⑭ 우금 : 우굽. 밥거리는 거.

늦우굽

⑮ 배수기 : 밥짓는 거.

⑯ 징

⑰ 시리 : 큰시리, 중시리, 작은시리

⑱ 떡본

ㄴ. 항아리(항)

① 양춘이 : 큰 건 양춘이엔 허곡. 그건 혼 요새 말로 허민 혼 섬이나 들 거.

② 소통개

③ 능생이

④ 조막단지

⑤ 암통개 : 암통개 우의 수통개 놓곡.

⑥ 망대기 : 능생인 영 다부룩허고 망대긴 소랑허고.

⑦ 장태 : 항에 더끄는 거. 항에 더끄는 건 크곡 그냥 이제 물방 그릇짓는 건 작은 저주. 사기로 된 거.

ㄷ. 상

① 도리반상 : 똥그락헌 거. 발있는 거.

② 상

③ 젓상

ㄹ. 정미기구

① 돌궤

· 아랫돌 : 알착(알뜰)

· 윗돌 : 옷착(옷뜰)

② 물방애(물가래)

③ 남방애

④ 도고방애 : 떠덜방애로 떠덜 짚는 거.

⑤ 방앳귀 : 낭으로 요만이 길쭉허게 맨들앙 똑 한도막에 영 손죄는 디 죄영 그냥 영 찍는 거, 방앳귀.

- ⑥ 방애특
- ⑦ 방애채경(차경)
- ⑧ 들혹 : 작은 거. 마늘같은 거, 뽕사놓는 거.
 - ㅁ. 바가지, 되, 용기
- ① 남박(낭박) : 낭으로 판 건 남박.
- ② 꺾박새기 : 호박줄 같이 여는 박. 꺾박
- ③ 남박새기
- ④ 족박
- ⑤ 함박 : 남박보다 큰 거.
- ⑥ 작박 : 께끄만 현 박새기고라 작박이렌 허주계.
- ⑦ 되 : 큰되, 작은되
- ⑧ 말
- ⑨ 병 : 뺑(뺑)
 - 두뺑들이(등덜뺑)
- ⑩ 허벅 : 육은 사름덜 물지는 거.
- ⑪ 다백이 : 허벅보다 작은 거.
 - 큰다백이, 중다백이, 작은다백이(대바지)
- ⑫ 질구덕 : 큰 거.
- ⑬ 들랑지 : 작은 거.
- ⑭ 풀보른 바구니

4. 가 옥

- 1) 집구조
 - ① 안거리
 - ② 박거리

- ③ 모커리 : 모편이 신 거. 영 모정 없으면 모커리, 바로 앓으면 안거리, 박거리.
 - ④ 방 : 구들, 큰구들, 작은(죽은)구들
 - ⑤ 낭간
 - ⑥ 마루 : 마리(삼방, 상방)
 - ⑦ 지붕가재 : 지붕끝
 - ⑧ 거왕낭 : 초지붕에 새끼줄 묶는 디.
 - ⑨ 창고 : 괴팡(안방). 창고에 하간 거 놓는 디(고팡).
 - ⑩ 무똥 : 문 베끼며 난 디.
 - ⑪ 기와집 : 지애집
 - ⑫ 초가집 : 초집
 - ⑬ 울땀
 - ⑭ 집지술 : 집윗 물노리는 디. 지신물 떨어지는 디.
 - ⑮ 디덤돌 : 옛돌
 - ⑯ 뒤주 : 두지
 - ⑰ 상마루 : 지붕에서 질 높은 디.
 - ⑱ 처나반
 - ⑲ 천장 : 처나반 우원 천장이고.
 - ⑳ 팡몰 : 납작납작헌 돌 놔그네 험 꺾아지지 아니허제.
 - ㉑ 올라
- 2) 부엌
- ① 굴묵당그네 : 굴묵에 이제 방때는 더레 이제 뭐 디물안허는 건 굴묵당그네.
 - ② 부엌 : 정지
 - ③ 찬장 : 살레
 - ④ 솔덕 : 솔안치는 디.
 - ⑤ 굴뚝 : 내나는 디.
 - ⑥ 부지땡이 : 불숨을 때 솔장알 헤갈를 때.

高山里 學術調查報告

- ⑦ 재 : 불경
- ⑧ 불경쳐내는 거.
- ⑨ 빗자루 : 비차락
- ⑩ 성냥 : 불팍, 곱
- ⑪ 창꿈
- ⑫ 불갈래 : 불갈래엔 현 것도 이 중간에서 난 거주게. 샅담은 거. 쪼끄만
현 거
- ⑬ 솔각

3) 문

- ① 지갯문
- ② 청방문 : 방과 부엌사이의 문
- ③ 올렛문
- ④ 안방문(고팡문)
- ⑤ 이문 : 건 저 바끄띠 이문. 저 올레에 큰집이나 이신 거.
- ⑥ 뒷문 : 삼방 뒤쪽으로 나가는 문
- ⑦ 정깃문 : 정깃앞문, 정깃뒷문
- ⑧ 널착문
- ⑨ 대문 : 마리에 있는 문.
- ⑩ 구들문
- ⑪ 문지방(지방이)
- ⑫ 이문지방
- ⑬ 통쇄
- ⑮ 결쇄

4) 부속건물, 기타

- ① 변소 : 통지

- ② 쇠막 : 쇠 묶어두는 디.
- ③ 물막 : 물 묶어두는 디.
- ④ 텃밭 : 우영밭
- ⑤ 난가리 : 늘
- ⑥ 느람지 : 난가리가 바람에 불리지 않게 씌우는 것.
- ⑦ 주쟁이 : 느람지 위에 씌우는 것.
- ⑧ 늘굽 : 늘 맨밑에 깎는 것.
- ⑨ 고드름 : 동곳
- ⑩ 지신물 : 가재에서 떨어지는 물.
- ⑪ 드덜팡
- ⑫ 돛집
- ⑬ 간장땀
- ⑭ 화로 : 화리
- ⑮ 도고리 : 쇠것도고리, 남도고리, 돛도구리
- ⑯ 쇠석 : 쇠매는 줄. 짧은 것.
· 쇠줄 : 긴 것.
- ⑰ 물석 : 물매는 줄.
- ⑱ 푸슴 : 쇠코 꿰는 거.
- ⑳ 피력 : 영장 물어난 말재에 마지막 집더헤 오젠 헐 때 먹는 거.

5. 가축, 곤충, 새

1) 가축(중승, 물목쉬)

- ① 말 : 즈매(암컷)
 응매(수컷)

高山里 學術調查報告

청충매 : 얼룩배기

가래물 : 검은물

적대물 : 붉은물

월레물 : 얼레물

② 소 : 쇠¹⁾

③ 송아지 : 송애기(송아기)

부릉이 : 숫송아지

암송아지

※ 송아지 나이에 따른 명칭

1년 - 금송송애기

2년 - 다간송애기

3년 - 사릅송애기

4년 - 나릅송애기

5년 - 다습송애기

6년 - 으습송애기

④ 강아지 : 강생이

수강생이

암강생이

⑤ 병아리 : 빙아리

⑥ 달걀 : 독새기

⑦ 염소 : 염송애기

⑧ 돼지 : 돼야지(도새기)

새끼돼지 : 자릿도새기

⑨ 고양이 : 고냉이

⑩ 쥐 : 쥐이

⑪ 사슴 : 깡륙

1) 소는 1년에 따라 나이를 세는데, 다른 짐승은 반년을 기준으로 나이를 센다.

2) 곤충

- ① 파리 : 파리
- ② 개미 : 거여미(거여지)
- ③ 장굴레비 : 모기가 되기 전의 상태
- ④ 지네 : 주냉이
- ⑤ 메뚜기 : 만축
 심방만축, 나뚫만축
- ⑥ 공중이
- ⑦ 모기
- ⑧ 국다귀 : 드르예 호끔 풀모기주게.
- ⑨ 개똥벌레 : 불한디
- ⑩ 돌방이 : 등땡이에 영 보말닭은 꺾데기 도라정 기어다니는 거.
- ⑪ 개구리 : 골개비(小)
 두꺼비(大)
- ⑫ 맹꽂이 : 멧마구리
- ⑬ 올챙이 : 멘죽이
- ⑭ 하막 : 약용 개구리
- ⑮ 하루살이 : 하루살이(눈엣눈)
- ⑯ 부구리 : 소피 빨아먹는 것(大)
 진드기(小)
- ⑰ 뱀 : 버염(진 거)
 - 물뱀기(독새) : 진 막 독이 독헌 거난 독새엔 허주게
 - 구렁이 : 구렁이
 - 도마뱀 : 독다귀
 - 돛줄레
 - 만췌미 : 진 사랑허게 혼어시 크도 안허곡 요만큼헌 지러기가 혼질혼

질허게 노리롱헌 거.

3) 새

① 재비 : 재비새

② 참새 : 참새

③ 매 : 소로기

④ 까마귀 : 가마귀

⑤ 꿩-암꿩 : 주치

숫꿩 : 장꿩, 우치

Ⅱ. 容 言 類

1. 연결어미결합 (1)²⁾

① 가깝다 : 벵디다, 가참다(벵디고, 벵디문, 벵더브난, 벵디제)

· 멀찍이 아지라. 벵더브난 더웁다.

② 가늘다 : ㄱ늘다, ㄱ느시롱허다(ㄱ느시롱허고, ㄱ느난, ㄱ느니까)

· 요건 ㄱ느시롱허고 요건 몽클락허다.

③ 가라앉다 : ㄱ라앉다(ㄱ라아져부난, ㄱ라아전, ㄱ라아지난, ㄱ라아져볼곡,
ㄱ라아져볼민)

· 배가 ㄱ라아져부난 사람은 다 죽어브렸져.

2) <백록어문>에 조사되지 않은 어휘를 골라서 조사했다.

각 어간에 연결어미 '-고, -으면, -으니까, -아서'를 결합시켜 조사했다.

- ④ 가렵다 : ㄹ렵다(ㄹ루민, ㄹ루완, ㄹ렵고, ㄹ러우난)
 . 아이고 몸 ㄹ루완 죽어지켜게.
- ⑤ 나누다 : 갈르다(갈랑, 갈라주민, 가르쟁허문)
 . 싹지들 마라그네 두 개에 반뜨기 갈랑 먹으라.
- ⑥ 가볍다 : 개부뚜릉허다(개부뚜릉허고, 개부뚜릉헌다, 개빚고, 개부우민, 개부우난)
 . 요건 개부뚜릉허고 요건 크난 든찍허다.
- ⑦ 나란하다 : 크쟁허다, ㄱ쟁허다(ㄱ쟁허 놔사, ㄱ쟁허은, ㄱ쟁허난, ㄱ쟁허고)
 . 시 개가 크쟁허게 싹져.
- ⑧ 꺾다 : 객꺼다(객겨사, 객겨야, 가끄젠, 가끄쟁, 객앙, 꺾아사)
 . 칼 이레 도라 연필 객꺼게.
- ⑨ 적시다 : 적지다(적정, 적지민)
 . 장물에 적정 먹으라.
- ⑩ 잔지럽히다 : 즈글루다(즈글르는, 즈글루난, 즈글라부난, 즈글라불민, 즈글라쥐도, 즈글라도)
 . 즈글라쥐도 꿈짝도 안허난 잘도 질기다.
- ⑪ 갑갑하다 : ㄹ꼽허다(ㄹ꼽허난, ㄹ꼽허민, ㄹ꼽허게, ㄹ꼽허게시리)
 . 더원 ㄹ꼽허난 시원허랜 옷 벗엄쥬.
- ⑫ 갈다 : ㄹ뜨다(ㄹ따부난, ㄹ뜨난, ㄹ타부난)
 . 꼭 ㄹ따부난 어느 것이 어느 건처레 모르켜.
- ⑬ 값다 : 물다(물레, 물어부난, 물꼭, 물어불민)
 . 무사 오라수과? 돈 물레 오라쥬다.
- ⑭ 가름하다 : 소롱허다, 소랑허다(소랑허고, 소랑헤사, 소롬허난, 소롱허난, 소롬허민)
 . 야은 소랑허고 야은 동글락허다.
- ⑮ 기울어지다 : ㅌ라지다(ㅌ라져부난, ㅌ라지난)
 . ㅌ라지게 아자나민 버릇된다. 꾸썩 아지라.

- ①6) 낚다 : 나끄다(나끄레, 나깁, 나끄곡, 나까당, 나까오민, 나끄민)
· 낚시대는 나끄는 거고 그물로는 거리는 거.
- ①7) 넘어지다 : 느려지다, 푸더지다(느려지민, 느려전, 느려져네)
· 아이고 저디 간보난 누계집 아이 느려져네 막 울엄서라게
- ①8) 날카롭다 : 느실다(느시란, 느시라부난, 느실고, 느실민)
· 칼 느실민 손 비여
- ①9) 물리다 : 느이다(느연, 느여네, 느여부난)
· ㄹ 뜯 것만 맨날 먹어부난 느였찌.
- ②0) 누르다 : 눌뜨다(눌땡)
· 저기 불럼찌, 잘 눌뜨라.
- ②1) 흔들다 : 흥글다(흥글민, 흥글곡, 흥그난, 흥글어가민, 흥글어사, 흥글어야)
· 아이가 탕탕 흥글어가민 두령청허영 안울주께.
- ②2) 눅히다 : 눅지다(눅경, 눅지민, 눅지곡, 눅지난)
· 작은 애기랑 구덕에 눅지곡 요 큰 애기랑 혼팬데레 안짱 놔두라.
- ②3) 눅뜨다(눅땡시니? 눅땡찌, 눅땡브난, 눅땡도, 눅뜨는 거, 눅뜨민)
· 어머난 자으 정 눅땡시니? 잘도 눅땡찌.
- ②4) 놓치다 : 털리다(털렸찌, 털려부린, 털려라마는, 털려불고, 털리민)
· 아이고 뿔겘이 겨 토끼 심어노나네게 오꼴 털련, 아여아여!
- ②5) 느끼하다 : 넉넉하다(넉넉허난, 넉넉허민, 넉넉허연게, 넉넉허구마는)
· 넉넉허구나마는 어떻허여, 흥꿈 춤주.
- ②6) 다니다 : 땡기다(땡견, 땡기당, 땡기곡, 땡기민)
· 게 무시거 허레 나산 얼러 땡겨서게? 영 씨러지게게. 나상 땡기민 놈 미국허매.
- ②7) 타다 : 따다(탕, 타곡, 타그네, 타민, 탕구마는, 타브난)
· 돛박 타그네 돛박지름 허여그네 그거 먹으면 막 허릿병도 좋곡 머리에 문제기 불르민 하이까라되곡.
- ②8) 따뜻하다 : 두땡하다(두땡허난, 두땡허나네, 두땡허고, 두땡허랜)

· 굴목 지드난 득뜻헌게 맨도통해연.

㉔ 다르다 : 딱나다, 툃나다 (딱나난, 딱난 거, 딱나브난, 딱나꼭, 딱나민, 딱
나야)

· 딱난거 신으민 모양으서.

2. 연결어미결합 (2)³⁾

① 먹다

ㄱ. 밥 먹으멍 TV보지 말라.

ㄴ. 밥 먹자말자 자게 눅지 말라.

ㄷ. 밥 먹으난 배불다.

ㄹ. 밥 먹어도 고기 먹켜.

밥 먹구데나 더 먹읍써.

ㅁ. 밥은 아까 먹었주마는 또 먹지기롭다.

ㅂ. 밥 먹으민 미두허다.

이 과자 먹건 따시랑 도렌 허지 말라.

ㅅ. 밥행 먹젠 쓸 셋엄져.

ㅇ. 밥먹으레 가게.

ㅈ. 밥먹게 상출리라.

ㅊ. 밥 하영 먹어사 지레 커.

ㅋ. 밥 먹듯 공부허민 얼마나 조리?

ㅌ. 밥 자게 먹당 체절어.

밥 자게 먹다그네 체건다.

ㅍ. 술은 먹을수록 더 쎄여.

ㅎ. 밥 먹영 기운출리라.

밥 먹어그네 정신출리라.

3) 임의적으로 4개의 용언을 정해서 연결어미 전부를 결합시켜 조사해왔다. 연결어미의 종류및 구분은 이익섭·임흥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를 참고했다.

② 듣다

- ㄱ. 라디오 들으멍 공부해지느냐?
- ㄴ. 는 라디오 들어브난(브나네) 시험 떨어져시네.
난 소문 들어사 그거 알아서.
소문 들으난 지겨져라.
소문 들언 알아서.
- ㄷ. 난 라디오 들어도 공부 잘 해집니다.
- ㄹ. 아까 들었주만(들었주마는) 생각 안남쨌.
- ㅁ. 그런 소문 듣거든(듣거들랑, 들어지진) 나신디 골아주라.
- ㅂ. 라디오 듣젠하민 그거 틀어사주.
- ㅅ. 소문 들으레 감쨌.
- ㅇ. 라디오소리 듣게 크게 허라.
- ㅈ. 재밋는 소문은 들어사 재밋곡게.
- ㅊ. 라디오 듣듯 공부해시민 무사 시험에 떨어지느냐?
- ㅋ. 라디오 듣단 텔레비 뵤샤?
- ㅌ. 저 소린 들을쏘록 더 좋다.

③ 곱다

- ㄱ. 야온 고나네 감꿀아가씨 되켜.
쟈온 고완 크민 감꿀아가씨 나가지켜.
- ㄴ. 야온 고와도 이 지레 죽안 안되켜.
- ㄷ. 야온 곱긴허다마는(곱다마는) 지레죽안 안되켜.
- ㄹ. 야온 하꿈만 더 고와시믄 되켜.
- ㅁ. 얼굴은 고렌 화장허는거주.
- ㅂ. 얼굴이 고와사 감꿀아가씨 나가지주.
- ㅅ. 얼굴이 곱수록 멍음도 고와안다.

④ 눅다

- ㄱ. 그건 누워두서(누워둬서) 춤바끄는 식밖에 안되어.
누웠 책보지 말라.
- ㄴ. 야은 눅자말자 줌들어.
- ㄷ. 차은 그냥은 지레 족아도 누난 지레 크다.
- ㄹ. 걱정이시난 뉘도 줌이 아니와라.
- ㅁ. 누민 편안헌다.
아이고 뉘시민 조켜.
- ㅂ. 눅젠 혼난(눅자젠 혼난) 이불 빼웁주.
- ㅅ. 난 저방에 누레(눅자레) 가켜.
- ㅇ. 잘 눅자게(눅게) 이불 빼우라.
- ㅈ. 오래 뉘사(게) 편안허주.
- ㅊ. 자인 눅다네(눅단) 다쳤쨌.
눅자젠허당.
눅젠 혼단.
차은 눅당 추물락헬쨌.
- ㅋ. 오래 늘수록 편안허주게.

3. 종결어미결합⁴⁾

① 의문형어미 중에서

- ㄱ. 과거시제 : 가시냐 , 가수파 , 갔수파
- ㄴ. 현재(진행) : 가멘 , 감수과 , 가미파 , 감신가 , 감시니 , 감다
- ㄷ. 미래시제 : 갈것가 , 갈따 , 갈자 , 갈건가에 , 갈겨우파 , 가젠헬수파

4) '가다'라는 동사 하나만을 가지고 종결어미들 조사해왔다. 조사된 것만을 갖고서 분류했다.

② 긍정서술형 어미 중에서

- ㄱ. 과거시제 : 갔찌
- ㄴ. 현재시제 : 감찌
- ㄷ. 미래시제 : 갈꺼여, 가쿠다, 가켜, 갈저라

③ 청유·명령형 어미 중에서

- ㄱ. 명령형 어미 : 가라, 갑싸
- ㄴ. 청유형 어미 : 가게, 글라, 가게마씨, 강보게, 강뵈주, 갑시다. 갑주



※ 본 조사에 협조해 준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

김귀생(여·80세), 좌유생(여·80세)
김복정(여·79세), 김태현(여·80세)
고수학(남·78세), 고원준(남·60세)
이영행(여·60세)

民 謠

目 次

- | | |
|-------------|----------|
| I. 勞動謠 | II. 儀式謠 |
| 1. 뱃노래 | 달구 노래 |
| 2. 김매는 노래 | III. 打令類 |
| 3. 타작 노래 | 서우젓 소리 |
| 4. 밭 밟는 노래 | IV. 童 謠 |
| 5. 멧돌 노래 | 자장가 |
| 6. 나무 깨는 소리 | |

北濟州郡 翰京面 高山里 민요 조사는 세 차례의 채록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내용별로는 크게 勞動謠, 儀式謠, 打令類, 童謠로 구분되는데 이번 조사는 주로 勞動謠 중심이었다.

전체적으로 예년 수준을 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이번 조사의 수확을 든다면 남성 勞動謠의 채록일 것이다.

이번 조사에 응해준 남성 제보자의 경우 이야기식의 특이한 구연양상을 보여 주었는데 정리, 기록하는데 힘이 들었다.

여성 제보자들의 경우 제보자들의 호의로 집단조사가 가능했다. 이러한 집단조사는 조사 자체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아울러 조사자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였다.

채록하는 데 있어서 사실 자체가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경우 이를 제외했다.

표기는 제보자 발음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제주어 표기법 시안'에 따랐다. 지면 관계상 구연양상, 제보자 소개 등은 생략하기로 한다.

I. 勞 動 謠

1. 뱃노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요배타건	어덜가나
차귀섬이	놀아가듯
우리배에	선왕님은
앞발로락	허우치멍
뒷발로랑	밀려가멍
어기야쳐라	어기야쳐라
요밴들에	그차진들
부산항구	넙븐죽거
업슬말강	이어도사나
울땀목이	정옹호네
이어도사나	요물아래
금과옥이	쌓였건마는
높은남계	열매로구나
우리님은	어덜가고
날생각을	영잇었느냐
무정훈	세월아
너혼자	가거라

내청춘을	드리고
날나리	왜가느나
오르지	못홀나무는
보지도	말아야한다.
예수나	믿어서면
천당에나	갈건디
고동생복	믿었다가
내신세가	요골이라
저산촌애	토십새는
해년마다	푸리건마는
우리인생	한번가니
다시올줄	모르는구나
요목조목	울떨목이
지고나가자	매고나가자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내딸아	수발뜰아
방장뜰아	도울뜰아
얼어나덕고	잘크거라
오동나무	장괘에다
딸엿코	시집보내마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좌천옥 · 여 · 65)

2. 김매는 노래

2-1

어기여랑 서화데야

검질짓곡	골너진बाट
그분새로	여회멍매자
앞에보난	곤아장아장
현저오랜	손을친다
손치는던	눈아니치냐
손치는던	해낮에 가고
눈치는던	야밤에 간다
어기여랑	서화테야
앞이가는건	넛통새야
뒤에가는건	청청매야
뒤에오는건	들각귀신
들각찰각	다따라온다
어기여랑	서화테야

(박성이 · 여 · 81)

2-2

어기여랑	소리야
어기여랑	소리야
뒷멍시랑	물러나라
앞멍시랑	들어오라
멀리에 사름	듣기 좋게
복든디 사름	보기 좋게
어기여랑	소리야
요만허민	혈만하다
적준님네	모다들멍
모다모다	다허서요
어기여랑	소리야

(고공백 · 남 · 89)

3. 타작노래

3-1

어아흥	어아흥
요동산을	뜨릴동산
요도개로	요보리를
두디려전	장만 흥영
우리아기덜	밥 흥영뵝이멍
어버살령	국민학교마당에
내여놓쳐	어아흥
어느재랑	이아기덜
중학모침	대학꺼정
시켜보리	어아흥
어아흥	밭도없고
집도어성	호호마다
동냥허멍	요공부시경
직장에나	들여보쟁
어아흥	어아흥

(양원숙 · 여 · 72)

3-2

어아흥	어아흥
요눔보리	추리여구나
나어개로	디리먼
부서지고	떨어진다.
적군님네	모다들멍

高山里 學術調查報告

나 혼 번	두드리면
당신네	두드려보소
요도개는	나어께가
끄차저도	쉬때려준다
보리가	열두말에
열사름이	두드려간다
오늘은	이것을 다 하면
도개가	부서져간다
보리가	때려지면은
오늘종일	잘먹어진다.
어야홍	어야홍

(고공백·남·89)

4. 밭밟는 노래

4-1

어랑하랑 소리에 요물저물 정신 령
높은동산이랑 올라디디명 월랑질랑
불려보라 어어어어
어랑 하랑
어려려려려 요물저물 아무리 허여도
너가 향고야 말일이로구나
어랑 하랑
요동산이 평지가되게
다 불려가는구나
요물저물 너팔재가 내팔재
흔팔재로구나 아무리 허여도 너가 향고야

말일이로구나

어랑 하랑

요밭디 제석할마님 종이란 올리건

남이랑 청대잎기치 내우곡

고고리랑 당발디만치 내와줍서

어랑 하랑

(박성춘·여·65)

4-2

어랑 하랑

요꼴저를 지나간 이앞으로 가야오랴

앞이어 뒤이어 가지말고

나앞으로 돌아오시오

어랑 하랑

이꼴저를 뜯되래 가지마랑

나앞으로 오라

이산에 놀던 므시야

저산에 놀던 므시들은 잘먹고 노냥

많이 많이 하나예

어랑 하랑

요밭을 다 볼려야 나갈터이니

우리벗님들 모두가 잘 물어주소

어랑 하랑

(고공백·남·89)

5. 멧돌노래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ㄹ래아닌	지나미서교
지나미라도	녹아꼬득
나의 ㄹ래아	이여이여
요만일석	지칠말까
요런일을	하당
물러나면	놈이웃나
일간새는	놈이안다
굽엉일엉	굽엉일엉
놈의눈에	들어맞게
흔번으로	설러블라
이여이여	이여도흔라

(양원숙·여·72)

6. 나무깨는 소리

이도깨로	이도치로
요낭이나	깨어볼까
흔번두드리면	나갈까 안나간다
흔번두드리면	부서지고
두번두드리면	부서진다
두번세번	두드리난
나무 짝이	벌려진다
요놈의	도깨는
질바르게	잘벌려진다
잘도잘도	벌려지멍
고르게	잘나간다
요도치	맹근사람

일등먹게 되엇소이다
ㄴ만이 벌리면
몇가지나 열가지나
오십가지 벌려야
흔줄래가 됩니다.

(고공백·남·89)

Ⅱ. 儀 式 謠

달구노래

A : 어허어 달구

B : 어허어 달구

A : 요산천 돌아보니

B : 어허어 달구

A : 천리내용에 일석진이라

B : 어허어 달구

A : 청룡백호 돌아오니

B : 어허어 달구

A : 자손창생 할때로다

B : 어허어 달구

A : 청룡끝에 운필봉이요

B : 어허어 달구

A : 백호새는 활꼬자형이니

B : 어허어 달구

A : 주자주손 대과지지

B : 어허어 달구

高山里 學術調查報告

- A : 초자차손은 증지급재
B : 어허어 달구
- A : 외자외손은 무과급재라
B : 어허어 달구
- A : 산천은 봉원대지
B : 어허어 달구
- A : 요세상에 사람을놓고
B : 어허어 달구
- A : 어인일로 죽으라하고
B : 어허어 달구
- A : 공자같은 대성인도
B : 어허어 달구
- A : 칠십살에 봉하시고
B : 어허어 달구
- A : 천하영웅 진시황도
B : 어허어 달구
- A : 사고평대 저물어진다
B : 어허어 달구
- A : 위수상에 강태공은
B : 어허어 달구
- A : 전후팔십을 살아서도
B : 어허어 달구
- A : 우리같은 초로인생
B : 어허어 달구
- A : 단팔십도 못살아서
B : 어허어 달구
- A : 아이고지야 원통이야
B : 어허어 달구

(A : 박성이 · 여 · 81, B : 조사자)

Ⅲ. 打 令 類

서우젯소리

아아아앙	에헤에요
뗏구나	뗏구나
동새벽이	뗏구나
간다간다	내가 돌아간다
우리가	살면
몇백년이나	살겁니까
아아아앙	에헤에요
불쌍해	실수가 되면
내무덤이	되고만다.
잘살다죽어	공동산천
못살다죽어도	공동산천
이왕지사	못살경우
요정저정	살아보자
아아아앙	에헤에요
날난어멍	날베리길
높은낭에	꽃베리듯
설운어멍	기영보단
어덜가난	못보는고
공동산천	지남철인가
훈 번가면	왜못오코
아아아앙	에헤에요

산이높아	못오시는가
물이깊어서	못오시는가
산이높아	못오시거든
비행기를	타고 옵서
물이깊어	못오시거든
연락선을	타고옵서
우리인생	낙화되면
우리간줄	누가알코
아아아앙	에헤이요
인생일장	춘몽중에
아니놀앙	무엇하리
청춘이	둘이라면
원망인들	왜훔 지나
청춘이	하나기에
원망을	하십니다
요청춘이	어덜가고
방년이	돌아온구
인생일장	춘몽중에
아니놀앙	무엇하리
아아아앙	에헤이요
서산낙조	지는해는
매일아침	보련마는
우리인생	한번가면
다시오기	어렵더라
허송새월	하지말고
하루가 길다	아미타불
노세노세	젊어놀아

늡어지면
아아아앙

몹늡네다
에헤이요

(박성춘 · 여 · 65)

IV. 童 謠

자장가

왕이자랑	왕이자랑
이아기야	무사영
버릇없이	굴엄시
저래가는	금동개야
이래오는	금동개야
우리아기	재와도라
아니아니	재와주당
질근질근	총베로
발모가리	손모가리
몹어그네	지븐지븐
천지술에	들이쳤당
비온날은	내치고
별난날은	들이치켜
왕이자랑	왕이자랑
니무사	숫아나서
날이렇게	죽들암시
니흐나	아니난걸로
인구수가	부작허느냐
왕이자랑	왕이자랑
눔아니	보는거민
뒗발더레	털어불컬
왕이자랑	왕이자랑

(강병아 · 여 · 74)

說 話

목 차

- | | |
|-------------------|--------------|
| 1. 말 한마디로 복 얻은 노인 | 6. 복(福) 이야기 |
| 2. 부모들인 이야기 | 7. 은혜 받은 효자 |
| 3. 벙인태 | 8. 인간 세상 이야기 |
| 4. 오생이 이야기(I) | 9. 모기 생긴 이야기 |
| 5. 오생이 이야기(II) | 10. 황정승과 고종달 |

1. 말 한마디로 복 얻은 노인

한경면 고산리, 1989. 8. 5 조사

제보자 :李子榮(남·91세, 고산 1리 2반 2419)

—산을 삼으며 사는 가난한 노인이 어느 날 장에 갔다가 돈을 빼앗겼는데 다시 찾아내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적을 만난다. 도적이 돈을 빼앗으려 할 때 마침 사또가 지나가게 되는데 노인이 도적들을 감싸줌으로써 도적들이 그 공을 알아 은혜를 갚아 그 노인은 잘 살게 되었다—

흔 사름은 그런 사름이 있더라 허여. 가난헌 사름인디. 옛날은 초신이라고 삼양 신는 신, 그런 신만 삼으멍 풀양 사는 사름인디 경 정 허연 모다가니까 서른냥 돈을 모드안. 그겿 돈은 소돈이난. 서른냥 돈은 무거왔주게. 이젠 전

대에 그 돈을 담양, 혼번은 어디 장엘 가그네 뭐 사당 먹을 걸 사나 입을 걸 사나 허젠, 서른냥 돈을 전대에 담고 장판엘 가서. 장판엘 가서 땡기는디, 엄부럭 총각놈, 나한(나이든) 총각이주게. 엄부럭총각놈이 콜락이랜헌 것에 지름 둥글둥글 튼 짓누렁헌 술을 혼 그릇 박새기에 걸영 장판에서 돈 ㄱ진 노인 보고 "당신 이 술 말양 먹슈, 먹슈" 자꾸 부대기거든. 술을 혼착손으로 맡으젠 허민 박새기가 채질꺼고, 양착손으로 맡으젠 허민 돈전대를 알으레(밑에) 놔야 맡으게 되고허니 돈전델 알으레 낫 내불민 이 놈이 꼭 ㅁ감착허거든. 이제는 이거 무관아니라고 해서 돈전델 알으레 놔돈 양착으로 술잔을 맡아가난 그 고에(새에) 첨 돈전대를 확 ㅁ양 돌아나불거든. 이제 돈을 잃었지. 잃으난 돈은 잃어부렀지만은 술을 맡은 집에 에, 게나저나 술랑 먹자고. 술은 들어싸 두고 콜락작만 가정 장판에 혼썰 땡겨주게. 어떤 처녀가 강 말허기를, "이 영감은 우리집 술짜독 가정 땡겨네" 영 허거든. 경허난 그 아즈방 허는 말은 "너의 집의 술짜독이 왜 내 손에 올꺼냐" 허난 "그런게 아니라 저 우리 밧거리에 하영들 앓안 노름햐슈. 노름허멍 엄부럭총각히 작박에 술 거렁 나오더니 그 우리집의 술 작박이요." 이젠 어느 놈인 처리 몰랐지만은 그 처녀 곤는 말로 도적은 심어질 거 아니라. "네 집은 어떻게 행 가느냐" "요 아무덜로 행 가민 우리집인디, 밧거리에서들 노름들 햐수다" 이젠 그 처녀 말 들영 그덜 강 보난, 밧거리집에서 혼판 노름들 햐따 말이여. 강 보난 그 돈 ㅁ다 낫 돈을 앞에 무룩이(듬뿍)났고랜 허여. 영 배끼떠(밖에) 강 기척허난 돈 ㅁ간 놈이 "하, 영감. 잘 오랏수. 당신 돈을 ㄱ썩(아까) ㅁ아당 내가 돈을 땀으니 당신 이제 돈을 ㄱ져가시오." 영허거든. "나 경허맨 얼마나 ㄱ져갈겨요?" "허거든에 저 안거리에 강 귀헌 걸로 내 쥐인보고 말헐테니까 강 잡햐슈" 이제 그 놈이 쥐인보고 "쥐인 있는 게요?" "아, 있네" "저, 이 영감 갔건 그 음식값은 내 갚을꺼니까 당신 달라는냥 잘 안내시오" "경 허게" 이젠 거기 강 ㅁ음에 있는 걸로 줌센 햐 잘 먹었다말이여. 먹으난 이제 그 놈이 그 ㅁ간 전대에 그 자 무락이 담양 "가정 집에 가심" 돈을 주거든. 담아주난 돈을 드러매고 뭐 사도 안허고 그냥 집에 오랏주게. 오는데 도적놈을 만나서. 도적놈 싯을 만났

던 모양이라. 앞에 오는다 조름(뒤)에서 말험을, 서시오멍 말험을 귀에 들리기를 “저더 가는 사름헌티 가서 저 가정 가는 거 빼어오라”고. 지네끼리 말허멍 “아, 거 의복광 남투허게 입고 뭐 저 사름헌티 돈이 셔제?” “개도 강 보라”고 “그정가는 거 돈일거라”고 허쓸 좇아강 돈을 도렌 허는 턱이라. 말 근는 턱인디. 슝또가 지나간다 말이여, 슝또 말 우위 앓아도서 허는 말이 “어떤 일로 뉘 일이 셔서 그렇게 드투는 말들 허느냐” 허난, 도적놈들은 말 못허고게. 이젠 돈임재 허는 말은 “그렇게 아니라 나 이 사름들신디 빚 갚을 거 있습니다” “빚 갚을 거 있는디 어찌 그렇게 허느냐” 허니 “빚 갚을 거 있는디 빚을 갚으랜 허길래 벌영 갚으켄 행습니다” 슝또 허는 말이 “웃는 사람이 벌영 갚으켄 허건 벌영 물민 반젠 허지. 싸우민 소용있느냐” 경 굴아든 몰탕 그자 그 말 굴오난 슝또 지나가분다 말이여. 이젠 도적놈들 서이허는 말이 “당신 어디 사느냐”고 “나 아무도랑의 쪼그만헌 초막살이에 신 삼오멍 사는 사름입니다” 허난 “당신 말헌 곡절이 고마와서 우리가 살았으니까 당신의 공을 갚아야겠다”고. 도적놈들이 “우리가 삼백명떼인디” 지네가 삼백명분당이랜 현저주. “삼백명분당인디 당신 입에서 도적이라 이러시맨 우릴 심영 가서 취조허민 다 그 수정(數) 굴아노민 삼백명이 다 곤란받고 죽을 모양인디 당신 말 잘허기로 우리 삼백명이 살아시니까 당신 공을 갚을 거니까니 아무날쯤에랑 배롱이 불이라도 쌍 앓아시민 선나게 우리가 좇아갈테니까 경행 당신 가라고” 보낸다 말이여. 경 보내난 가켄 헌 날짜에 불 배롱이 싸고 앓았더니 삼백명이 그자 의복이고 쓸이고 혼 짐씩 다 져갔단 말이여. 삼백짐이 들어갔어. 말 혼곡절 잘허기로 잘 된 놈도 있다허여.

2. 부모들인 이야기

한경면 고산리, 1989. 8. 5 조사

채보자 :李子榮(남·91세, 고산리 2반 2419)

-어릴 때부터 부모없이 커 온 남자가 어느날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서 부

모로 삼을 사람이 있으면 사십만원에 사 가라는 방을 보고 두 어른을 부모로 삼고 싶어하나 가난해서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래서 병이 났는데 보다 못한 부인의 도움으로 돈을 마련하게 되고 두 어른을 찾아가는데, 그 노인들은 자식이 없는 부잣집 노인들이었다. 그래서 친척들이 재산들을 탐내자 그런 수를 썼던 것인데, 그 남자의 효성어린 뜻이 통했는지 두 노인을 모시고 부자가 되어 잘 살게 되었다-

전에 그런 사름이 있더라하여. 남잔디 어릴 때에 어멍 아방말을 줄바로 못 굴아볼 때 어멍 아방이 다 죽어본 사름이 있다말이여. 그 사름이 경헌 지대로 어멍 어멍 육양 커나서 장개를 가는데 돈도 웃고 아무 것도 어시난 혼어시 부잣집에서 가져게? 경헌난 여자가 낳는날부터 어멍 배소꿈에서부터 발 혼착이 뻥신된 자라. 그런 디 장개를 가서. 경헌디 그 여자 아방이 이 야기는 뻥신뎡이 되니까 누게 후계 데려갈 사름이 시면은 도장이라도 모닷당 쥐블라고. 낳는 날부터 적금을 해서 모닷당 푼을 즐라고 저금허영 놓는다. 마춤 남자가 가시난 시집을 보냈주게. 이제 시집을 오란 사는다. 어멍 아방 어릴 때 죽어본 남자가 어디 뎡기당보난 거리에 문방을 써 불이기를 스십만원을 쥐그네 할망 하트방을 사다그네 어멍 아방으로 삼을 사름 있건 사가랜 글 써 붙여져서. "돈 스십만원만 이시민 그 어른들을 사다그네 어멍 아방말을 실피 놀 아보당 죽어지민 나도 원 어시켜" 허거든, 각시보고. 그러니 그 여자 허는 말은 "스십만원 돈이민 우리가 먹고 입곡 행이라도 살건디 스십만원 돈이 어디 십니까? 허고 "늑신 어른들 두 개나 사 오민 우리도 굶영 사는디 뭘 멕이고 입지고 헐 것파? 경헌 먹음을 먹지 맙서" 가난허게 살고 아무것도 어시난 여자사 경 안 굴아게? 경해도 남자는 돈 스십만원만 이시민 그 어른들 살 먹음을 딱 가져서. 근심을 허니까 웃는 병이 나서. 음식도 잘 안먹고 조금 늘어가는 모양이 뻐거든. 여자 생각에는 이 남자가 죽어블고 그러면은 이 아기들랑 살아갈 수가 어시난. 이녁도 오몽 못허고 허니 아니되겠다 허는 생각을 가져서. 혼론 남자보고 허는 말은 "경 근심을 맙서. 내 혼번 친정에나 뎡겨보쿠다" "경 허라" 허연. 여자가 이제 친정을 갔어. 강 보난 아방은 웃고 허난 어멍보고 말허기를

“아방은 어디 가수강” “어디 땡기래 강 돌아오지 안했져. 오랏거든 뵈영 가라” 허니 이젠 훗밤을 자고 아방을 대해서 말허는디 “집에 남편되는 사름이 스십만원돈만 시면은 늙은 어른 둘을 사다그네 어멍 아방 삼앙 살 사름 있거든 사랜헌 글 붙여서랜. 그 글을 본 후젠 사오지 못헌 근심으로 뵈영 나서 음식도 잘 안 먹고 허염수다” 허난 그 여자 아방 허는 말은 “너 낳는 날부터 뵈영으로 낳길래 내가 후제 데려갈 사름이 시면은 돈을 모닷당 줄라고 해서 훗돈 두푼 모다서 이신디 경헌 돈으로 논을 몇마지기 산 이시니, 그걸 내가 벌업시니, 그 논을 풀아가지고 줄라면은 그렇게 재계 풀지도 못헐거고 돈으로 육십만원만 주민 ㅈ져가라” 돈을 육십만원 준다 말이며. 이제 그 돈을 가정 오랏다. 오니 이제 남자가 남은 돈으로 두 어른적시 의복 다 지어놓고 스십만원 돈을 봉투지에 다 담고 그 문방을 봐서 어디 서울지방 근방을 훗아가서. 강 보니까 기와집 몇 채에 사는 하르방이라. 그 하르방은 어찌 그렇게 했는고허니 아덜도 풀도 웃는 하르방이라 부재로 살아도. 이젠 꺾당들은 돈 한 하르방이난 나도 그 하르방 양재들켜, 나도 그 하르방 양재들켜, 모두 영 허는 모냥이라. 나중에 어디 아기들 헐 사름을 점치 안허면은 일가에서 싸움이 일어남칙 허거든. 허니 그 의견으로 이젠 글로 해그네 사가랜 썽 붙였던 모냥이라. 그 사름이 강 “문방을 봐서 훗아왔습니다” 허니 그 하르방이 “오, 날 사레 온 사름인가보다” 허영 봉투지를 말으멍 깐 보지도 안허고 가정 어디래 나가. 그 하르방이 나가 그 하르방이 자랑허기를 내 아무살적의 아무곳에다 땡겨난 적이 있는디, 저기에 즈식이 컴져허는 소릴 들어도 나 무음엔 그런 일이 웃을거랜 허당보난 즈식된 사름이누엔 의복 지어 놓고 돈도 열매 가지고 날 훗아오랏다 헐. 꺾당들헌티 꺾았주게. 꺾앙 집에 오란. “우리 사는디 급서(가십시오)” 허난 아기될 사름이영 헐 오랏다 말이며. 오란 보난 지네도 꺾는 사름이 반찬이영 찰리덜 서넉들을 사는디 훗썰 꺾댄 허는 일 웃이 모두가 잘 출령 안냈거든. 살다가 이제는 내 집에 가서 훗 서넉달 후에는 울거니까 살암시라. 해그네 그 하르방이 집에 오랏어. 오라가지고 이제 동네사름들이영 꺾당들이영 아기신디 강 살당 오랏젠허연. 이제 사는디 서넉달 넘어가도 그 어멍아방될 어

른이 아니가지든. 다시 그 아기될 사름이 훑아오라서. 의복 지어놓고 다시 훑아왕보난, 그 새에 발이고 논이고 집이고 좋은 재산은 전부 훑아가지고 보겏또에 딱 담은 모낭이라, 그 아기신디 가려고. 마춤 아기가 가시난 우리 아기가 이제는 날 돌래 오랏단. 이제는 모두 우리 두 늙은이가 가게 댘다고. 이제 마트민 장바닥 마튼디 너른디에 간, 천막이영 다 쳐 놓고 동네 어른들이영 펜당들이여 막 오랜헨 모여 앉전 듯 잡아놓고 술 맥여놓고 막 맥여놓고. 아기 훑앙 가노넨. 경허난 그 어릴때에 어멍 아방 죽어본 사름이 수십만원 돈을 쥐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돈을 아깝지 아니하고 그런 뜻을 가정 헨 거니까 그래서 경헌 먹음을 먹어그네 그런 하르방을 사당 큰 부제로 살고랜허여.

3. 뽕인태

한경면 고산리, 1989. 8. 5 조사

체보자 :李子榮(남·91세, 고산1리 2반 2419)

—사또가 동지선달에 탈(열매 일종)을 따오라느니 배를 가른 흔적없이 닭을 삶아오라느니 열발 고기를 잡아오라느니 할 때마다 재치로 그에 대응하여 사또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야기이다—

옛날에 국가에 소또라는 냥반이 씯주게. 나라에, 소또랜헌 군이 오민 백성은 아무재도 맹령이라, 무신 반찬거리라도 구허게 받아난 모낭이라게, 소또가 허난 혼번은 소또가 허는 말이 “동지선달에 탈을 타오라” 허저든. 동지선달에 탈이 실거라게? 이제 백성이 안타가민 소또맹령으로 괴로움을 받을 거고, 탈을 어디 강 타가느냐 말이다. 근심을 허는디 뽕인태가 허는 말이 “무사 영들 죽드람수강(애태우고 있습니다?)” “그런게 아니라 소또에서 탈타오랜 허난 동지선달에 탈을 못타가서 죽드노라” 허난 “예, 거 일 어수다. 내뽕서. 나 가그네 말대담 행오쿠다” 이제 뽕인태가 소또신덜 가서 강 허는 말이 “오멍 보나네 새끼 뽕 응매(雄馬)가 십디다” 소또허는 말은 “너 이놈아, 응매가 어떻 새

高山里 學術調查報告

길 배느냐?” 허난 “스또님, 동지선달에 탈은 어디십니까?” 대답이 서계? 경
헨 해결했노랜허여.

훈번은 독을 잡앙 말려오라 허거든. 독을 잡앙 이제 그 뺑인태가 부름씨꾼
이난 이제 ㄱ트민 밋을에 소사주게. 부름씨꾼이난 독을 ㄱ콜 잡앙 배쏘곰에영
셋쟁허민 채여질꺼 아니라? 잡앙 독을 솥앙 가져갔단 말이여. 독을 잡젠 허난
배영 채여져시난 “경허질 말고 배도 채지말고 잡은 줄 모르고 곱게 독을 잡아
서 혈러난 디 웃이 곱게 솥앙 울거 아니냐?” “이걸랑 너 먹어불고 다시랑 그
렇게 행 오라라” “예” 이제 독을 잡앙 배를 채영 ㄱ콜 씻어두고 똥은 다 뺏지
만은 그 속드레 쉴 ㅎ쉴 농곡 허영 윈 혈러난디 웃이 판적허게 허영 독을 곱
게 솥아갔다말이여. 솥아가니 혈러난 딴 웃고, 독 배 췌 디도 웃곡, 봉그랑케
잇고 독을 고양 솥아갔거든. 스토 밋음엔 쏘곰에 똥을 안빠분거 같거든. 봉그
랑케 행 이시난게. 경 해시카 부댄 “안 먹겠다. 너 가져강 먹어불라” 또 그거
갔당 먹어서.

이제 훈번은 백성들이 또 즈들암거든. “무사 즈들암수강?” “스또에서 열발
케기 심어오랜허난 윈 아 열발 케기가 어덜 성 심어가? 그 때문에 즈드노라”
허난 “에에. 내뽉서, 내 뺑 읍주” 이제 가멍 김이(계) 하나 심어 잤어. 김일
하나 심영 강 “스또님, 열발 케기 심어오랜허쿠테 열발고기 심어오라수다” 허
멍 김일 내놓거든. “이놈아. 저 어뎡 열발 되겠느냐” “거 발 세뽉서. 열발 아
니과?” 김이가 이착에 다섯개 저착에 다섯개, 열발이라. 경허멍 스토를 말 못
허게 헨 놈이 있더라허여.

4. 오생이 이야기(I)

한경면 고산리. 1985. 8. 5 조사

제보자 :李子榮(남·91세, 고산리 2반 2419)

-익살꾼 오생이가 벗과 술헌동이 내기를 해서 지나가는 중을 한번은 울리고 한번은 웃기기로 했다. 다가가서는 중에게 "당신이 바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러저러한 중이 너의 형이니까 찾아가라고 한 사람"이라며 중에게 형님이라고 하며 울면서 말하길래 그 중은 울었고 나중에 거짓말이라고 해서 중이 어이없어서 웃었다-

오생이가 벗 하나 허고 둘이 실갱을 허다가 보니 앞으로 법당에 사는 중이 오라가거든, 이제 시님이랜 허주만은. 오라가난 벗이라 허는 말이 "저디 오는 사름을 혼번 울리고 내 웃지고 허민 어찌냐" 허난 벗 허는 말은 "경 못허민 어땡 허느냐" "경 못허맨 나 술헌동이 내켜. 나 경허민 너 어땡겠느냐" 벗 허는 말이 "너 경허면은 나도 술 혼동이 내켜" 나길(내기를) 허여두고 이제 오생이가 벗이라 허는 말이 촌촌이 오람시라고. 앞드레 허쌀 재계 나간, 그 중을 흘목(손목) 강 폭 죄멍 허는 말이 "아고, 성님이로구나. 성님 오래만이 성님을 만나점수다. 아버님이 시상을 돌아가멍 허는 말이 '나 죽어 불고 난 후제랑 아무곳의 아명헌 사름이 너의 성이니까 좃아가네 형제 삼앙 살랜 굴안, 아버님 궂는대로 성님을 좃아나산, 경했는디 오랫동안 만나점수다" 지가 허쌀 울어가멍 경 굴아가난 중도 운다말이여. 울어가니 이제 오생이 허는 말은 "아고, 성님 울지말서. 저 나 혼번 올려보젠 거짓말 해수다" 경허난 그 중이 허싹헨 웃나 말이여. 어이어시난 웃거든. 이제 그 벗이 술 혼동이 내줘서게. 나기를 해노난.

5. 오생이 이야기(Ⅱ)

한경면 고산리. 1989. 8. 5 조사

제보자 :李子榮(남·91세, 고산1리 2반 2419)

-장가를 못 간 오생이가 껍을 내어 정승내외가 없는 틈을 타서 정승집 딸에게 찾아가 오라버니라고 속이고 방에 들어앉아서 밥도 얻어먹고 토시도 한짝 끼고 온 후 그것을 구실삼아 장가를 들었다. 그리고 장가를 간 후 오생이와 그 부인이 서로의 아버님을 속여서 골탕먹게 한 이야기이다-

오생이가 장가를 가젠 허난 부모도 가난허게도 살고 부랑쟁이 되난 장개를 갈 수가 서게? 아버지고라 “어떻 며느리 구헐디강?” 허난 “가난허게 살고 너 부랑쟁이랜 누게 주지 안헐다”고 허난 이제 장개를 가 볼수가 웃다 말이여게. 경허난 혼번은 거리에 놀당보난 정심(정승)네 집의 딸, 옛날에 정심네 집의 돌이라 허민 거리바깥되 놀래도 못가곡, 집안에서만 시집이나 가지 전인 늙도록 살주게, 올래바깥되 안오란. 경허난 일가고 동네사름이고 얼굴을 모르주게. 집안에서만 살아노난. 경헌디 혼번은 보난 정심네 두 어른이 어디래 가본 모냥이라. 이젠 오생이놈이 거기 떡 들어가서 들어가멍 허는 말이 “삼촌네 있십니까” 어신 줄 아난게. 경헌 대답을 안허난 스랑간으로 스랑문을 영 잣현 바깥데메 보는 걸 보난 그 처녀라. 허는 말이 “아, 이기 누구 있구나. 삼촌 어디 가시니?” “어디 외방 땡기레 가수다” “넌 날 모르거여. 어디 안나땡기난. 나 저 오생이랜헌 오라방이노나. 삼촌네 오랑 ㄹ르민 안다. 일흠을 ㄹ르민” 오라방이랜 허난게 괜당이랜 행 들어움서 안헐거라게? “들어움서. 들어강 놀다갑서” 허난 이제 들어갔주게. 들어강 그 처녀있는 방에 ㄹ치 앗앙 놀단 보난 처녀가 옛날 훌목에 찌는 토시, 손도매랜 허는거, 그놈을 곱게 누비영 혼착은 누비영 잇고 혼착은 누비염서. “야, 우리 누이 바농질 재주 좋다” “이거 나 찌 봐시맨 조껴” 지겨 벗어도네 모차(완성돼)신거 혼착을 찌거든. “이거 나

흘목에 딱 맞다” “에에, 이거 나 쟁 가켜” “오라방 저 놈의 거 해도랜 허는 거 허는 때문에 오라방적시랑 나 누비영 뇌두크매 다시 오라그네 오거든 쟁 갑서” “웃다. 나 다시 오라질티말지” 허난. 오라방이랜 허난 그냥 보내랜허영 밥도 혼상에다 잘 차려주난 먹곡 “이제 나 가켜” 그 말만 곱앙 다른 말은 안 곤고 그자 “삼촌네 오랐거든 나 오란 감수다 ㄹ르랴” 경 말헨 집에 오랐주게. 오란 후제는 오생이가 아방보고 허는 말이 “아바님, 요 정싱집에 가그네 처녀 가 시매 머느리 해 가쿠다 행 들어빵 읍서” “하고, 날 ㄹ튼 사름이 돈도 웃곡, 경헌 정싱집에 말 곱레 갔당 매나 맛앙오주. 내 그디 강 그 말 ㄹ라지느냐” 허난 “어수다. 아바님은 가그네 욱을 빵 오라시민 그건 내 책임헨거니까 갑서” 이제 아들말 들영 흘 수 웃이 그덜 가서. 가난 정싱똥은 어멍아방이 외방 강 오라시난 “어디 저 오생이랜헌 이가 오라방이낸 허멍 오라네 삼촌네 어디가시 낸허कु테 외방갔덴 허난 오라네 ㅎ 쏘 놀다갑디다” “어멍 행 가시냐” 허난 “오라방이랜 허난 밥도 해 주곡 허난 먹곡 토시 혼착 누병 시난 혼착은 쟁 갑디다” “에에, 너는 벌써 속았다”고 “그 여기 오생이랜헌 놈 부랑쟁인디 널 허주 내젠 오랐고랴”고. 오생이랜 놈 믱음에는 강 물어빵 안주켄 허민 독도 행 주곡 토시도 누벼주난 쟁 오곡, 그디 강 놀다 오곡 했는디 허주내불지 안헨제? 허주내불민 정싱네집의 정싱똥엔 아무아무허연 일도 잇곡, 정싱똥은 이만저 만헨젠 허주가 안날거라게? 경 허주내불젠 궁릴헌거라 말이며, 안주민. 경허난 오생이아방이 그덜 머느릴허젠 갔어. “이만저만허난 처녀가 있덴허코데 머느리허젠 데리레 오라수다” 아니 대답해불민 허주날거난 정싱이 “경 허라게” 해불거든. 경헌 오생이가 이제는 그덜 장개가서 강 살림을 허는 모양인디. 오생이가 처가침을 강 보면은 처부엔 헌 이가 그 정싱이 콧대가 이만이 높은 사름이라 “아바님, 어디에 나가민 콧대가 너미 높아부난 좀 미안허겠십니다” 허나 정싱허는 말은 “나 믱음도 경은 헌다” “코를 ㅎ 쏘 줄일 수가 이수다” “어멍허민 줄여지느냐” “얼음허어다그네 자꾸 밀어가민 코가 줄어집니다” 이제 사우 곱은 말이랜 얼음해다네 코 줄어질터니허연 드러 그 놈을 밀엄다말이며. 똥은 흘번은 빵 “아바님, 거 무사 코를 똥으로 경 밀엄수강. 코도 벌정헨고

게, 아프지 안허우짱? 뭐시파?” 허난 “그런게 아니라 너의 남편 말이 콧대가 너미 높으니 어디가도 미안허쿠덴 허길래 ‘나도 경 현다’ 허난 ‘코 줄일 수가 이수다’ 허길래 ‘뺨으로 줄이느냐’ 허난 얼음으로 밀어가민 좋네허쿠테 그 말 들엉 나 얼음으로 밀어보느냐” 허난 풀 허는 말이 “아이고, 아바님 그런 잡눔 말 들엉 잘못했수다. 아프지 안허짱? 저리 데껴봅서. 슬만 더 빨강해수다” 생각해보니 부앤 나고 데껴부렀다말이여. 지 아방 얼떡인 줄 아난, 오생이 각시 랜헌 놈이 혼번은 시아방을 보니까 이 턱아리에 시염이 하나토 안 돌았거든, 흥나도. “아바님, 남자어른이 신수가 흥나토 안돌으난 원 어딜가도 미안허쿠다” 허난 “나 머음도 경은 현다” “신수돋는 약은 시수다” “뺨허민 신수돋느냐” “백개신(白犬腎)을 머른 걸 해당 입에서 침 적시멍 밀어가민 신수가 돌읍니다” 허난 그 말 들엉 어딜 강 사 봉았는지(주웠는지) 백개신 해당 입에서 침 적시멍 밀엄주게. 오생이가 뵈려보난 “아바님, 거 뺨으로 경 턱아리에 밀엄수과?” “그런게 아니다. 너의 각시말이 신수가 흥나토 어시난 남자어른이 어딜가민 미안허쿠다 허길래 ‘나도 경은 현다’ 허난 ‘신수돋는 약이 시수다’ 허난 ‘뺨꼬’ 허난 ‘백개신 머른 걸 해당 입에서 침 적시멍 밀어가민 돌읍네다’ 허코테 그 말 들엉 나 해보느냐” “아이고, 아바님, 그런 잡년말 들엉 그런 일 햄수강? 재발 데껴봅서, 아프지 안허짱?” 픽 데껴붙었다 말이여. 비금은 오생이가 각시보고 “너 우리 아바님 신수돋는 약 싯댄 허멍 안꼴을 말 ○양 너 어찌 그렇게 얼떡였느냐” “경허민 저 어른은 얼음으로 코밀민 코 좋넨 허멍 우리 아바님을 무사 얼떡입디강?” 영 허난 오생이 허는 말은 “나 그런게 아니라 저 어디 가 보난 얼음에 빠진 사름이 하간 신이며 뺨이며 움켰더라. 허길래 그 얼음으로 밀어가민 움기카부덴 내 그 생각으로 했노라. 너는 어찌하여 그리 우리 아바님을 얼떡였느냐?” 허난 “난 그런게 아니라 당신신디 아니 올 때에는 가문에 신수가 안돌았는디 당신 신(腎)이 어질러가니까 신수가 돌길래 나 그 의견으로 꼴았노라” 대신 경 꼴더랜허여.

6. 복(福) 이야기

한경면 고산리. 1989. 8. 3 조사

제보자 :李子榮(남·91세, 고산1리 2반 2419)

—복이 없다고 쫓겨난 큰아들네가 우연히 사게 된 강아지에게 복이 붙어 와서 재산도 늘고 잘 살게 되었다.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 개의 복을 먹으려고 하나 복이 술에 떨어지게 되고 그것을 며느리가 먹는다. 그래서 아버지는 복을 얻지 못하고 아들네는 계속 잘 살게 되었다—

부제로 살만이 사는디 아기도 여러개고 행 사는디, 관상허는 사름이 본 후 제로 원 삶을 살긴 살아도 복이 한나 붙은디 웃거든. 관상쟁이 믿음에, 잘 살 갠헌 복이 웃어. 당신네는 삶을 살아도 복녀쟁이는 웃어서 살암다고. 이제 어디 강 복쟁이 며느릴 해보젠 그 며느릴 특이 꼴리멍 며느리 했다말이여. 허 연 보니 며느리도 복신 며느리가 아니었거든. 이제 허난 어떤 일산디 큰아덜 네를 내몰아붙엿댄허여. 그 어멍 아방이, 너네들 복도 안주겠다니까 다 돌앙 (데리고) 살 시도 없고 니네랑 나강 잘사나 못사나 허랜. 내쫓아부난 홀 수어 시 나오란 어디 이제 마트민 대정쪽드레 나오란 댁기단 보난 늙은 어른들, 흠 치 백살 난 어른들이 아기덜도 웃고 부재로 사는 하르방이 있거든. 계난 “하 르방네 집의 우리 둘이 부름씨허멍 모진 일 허멍 농사도 지어내곡 행 살쿠메 돌앙 삼서” “경 허라” 행. 아, 거기서 이녀 부모추록 마치 살아 오람다말이여. 살아오는디 이 군들이 혼번은 말허기를 “할아버님, 저 아문디 발 쫄젠 헨계 돈이랑 하르방이 당허고 삼이랑 우리가 사그네 우리 돈 못갓으건 하르방 발 만들영 우리 발 사줍씨.” “경 허라” 돈 당해 가그네 발을 사주거든. 이제 그 발 벌곡 지네 적실 맹글영 오람다말이여. 혼번은 어디 댁기다보니까 어떤 사 름이 강생일 사오람씨.” 그 강생이 우리헌티 폼서” 허난 “나도 상 오는거라.” “계난 또로 십디강?” “그디 풀거 서고” 이제 그 집의 강 강생일 허나 샐어.

高山里 學術調查報告

강생일 상 오라네 강생이가 복 붙은 강생이었던 모양이라. 사오난 그 강생이 사오란 후계는 경 정 허난게 쇠도 사고 물도 사고 농사도 지으면 잘되고 그자. 게나네 이녀대로 집도 사고 초초 잘 됐다말이여. 잘 되나네 지네 부모사는 곳 의 사는 사름이 혼번은 어디 땡기레 갔당 거괴 오랏당 아무 사름 아기들은 여기 오랑 잘 살암져, 허는 소릴 들언. 아, 그 사름이 뵙 가젠 강 보난. 아, 논도 몇개 늘고 살만이 살암거든. 이젠 그 사름이 강 그 사름 아방신디레 강도 시려서(전해주었다). 당신아들네 나강 살렌 행 가난 아무 디 살암져허쿠테 강보난 부재로 살암더라고. 아, 정말인가 행 아방이 좃아가서. 춤 살만이 실암거든. 살안 부모 갔덴 경 박접도 안허고 그자 부모랜 식사도 잘 해놓고 허는 디 혼번은 아들되는 이가 아방보고 “아바님, 뭍에 뭍시 지중(제일) 그림수강? 그리운 거 있덴허민 허영 안내쿠다.” 아, 그 늬이 알았는지 어졌는지 “지 강생이 질리는 거 잡암 딸려주민 나 먹엉 가켜” 게난 부모가 궂는대로 그 궂 잡았다말이여. 개 사 온 사름은 개에 복 신 줄 알아서? 개 잡암 잡아가나네 메느리고라 허는 말이 “개를 잡아서 딸려주쿠들랑 호솔도 뭍 털어지게 말양 오고생이(원래 그대로) 딸려다그네 나한티 ㅗ져오라” 이제 먹게 되난 그릇바탕 메느리가 ㅗ져가젠 그릇드레 전져남주게. 막 전정 놓는디 무신 거 그자 콩방울만이헌게 솔드레 두룩허게 털어져. 그거 하나를 메느리가 혹 주성 먹어부렀다 말이여. 주성 먹엉 ㅗ져가난 “하나토 털어진 거 어시 맹심행 잡아오라시난 잡습서” 암사신디 어평해신디 윈 “아무것도 안 먹었느냐?” “솔으레 무신 거 콩방울만이 헌거 털어지코데 그거 나 먹어수다만은 궂긴 안 먹어수다” “궂기 안먹겠다”고. 게난 그 복이 솔드레 털어지는 그걸 머느리가 먹어부렀어. 그것이 시아방이 먹어부러시민 지네도 못살건디. 그 제에 복 털어진거 먹으난 그 제 복선 잘 살았던 허여. 게난 사름이란건 근본이 복녀이라. 잘 살고 못살고 허는 것도 복녀이고 팔자주게. 이 집의 질르는 개나 쇠나 물이나 해도 증생도 잘 질르민 지네한티 해 시키는 짐싱이 싯고 이익해주는 짐싱이 싯거든.

7. 은혜받은 효자

한경면 고산리. 1989. 8. 3 조사

계보자 :李子榮(남·91세, 고산리 2반 2419)

- 김정승과 이정승이 막역지간으로 지내다가 김정승이 먼저 죽는데 김정승 아들 둘은 잘 살고 작은 아들은 가난하게 살았다. 첫 제삿날 큰 아들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작은 아들이 가난하지만 아버님을 위해서 마늘죽을 쑤어 가지고 와서 상위에 차리고 갔다. 김정승이 이정승에게 나타나 이 죽을 먹고 간다면서 그 효심을 기특히 여겨 이정승을 통해 작은 아들을 부자가 되게 도와준다는 이야기이다-

옛날 그런 말이 싯되고.

김정승이래던 현 짐가(金家)가 정승으로 살고 앞에는 이가(李家)가 정승으로 사는데, 이정승도 아들이 삼형제, 김정승도 아들이 삼형제다. 정승도 되고 앞 뒤침일 사난 손잡양 댁디주게 서로. 죽어도 ㄹ치 죽고 살아도 ㄹ치 살기로 허는디, 김정승이 먼저 죽더라허여. 먼차 죽으난 이정승도 죽는 날도 ㄹ치 죽고 삶도 ㄹ치 살젠 했는디, 죽음은 ㄹ치 못죽으니까 이정승이 김정승드레 죽어가 난 허는 말이, "당신 모네 가진 삼년에 혼번씩이라도 나한티 꿈에라도 싯구어 달라" 경 허기로 허고 죽엇단말이여. 죽어부니 김정승 아들네 우우로 성젠 잘 살고, 죽은아들 하나인 아주 가난허게 살았다허여. 어멍이나 아방이나 죽으면 잘 사는 성들 조름에 도새기 한나라도 ㄹ치 잡젠 허민 오죽헌 설움을 받고 곤란받을 거여게? 위치가, 못사는 사름이. 살아오는디 김정승이 삼년이 넘어가도 이정승 꿈에 혼번 안싯구와. 이젠 꼭 색일때에나 대소상때에도 꼭 지켜고 댁김도 허고 행. 부탁허기는 죽어갈 때 강, "삼년에 혼번은 꿈이라도 싯귀달라" 허는 말도 허난 대담도 행 가곡 해도 안허겨주. 이제는 삼년 대상까지 넘영. 췌 식갯날 저녁은 안가서. 안가겠다 행, 죽어볼민 매기니까니 안가겠다고 해서 누윳 자는디, 밤중이 되가난 김정승 생시(生時) 때 타 멩기는 물소리가

高山里 學術調查報告

사랑 사랑 사랑 올래로 나거든. 난 몰매는 디 오란 몰 턱 매두고 짐정승이 이정승 사는 디 들어간, “이정승, 잡니까?” 허난 “잡니다. 들어옵써” 이젠 앓안 말 ㄱ르멍 허여 가는디, 이정승 허는 말이 “난 그런게 아니라 나는 삼년에 혼번 꿈에라도 신크달라 허난 아녀길래 죽어볼민 매기라해서 오늘 저녁은 내 안갔노라” 허난 “오젠해도 저심문새를 다 닭아동 오젠 허난 경 못옵디다” 허영. “오란보난 계난 잘 잡수영이나 갑니까?” 허난 “오란 보난 찰리기는 잘 찰려도 먹을 수 웃어가지고 죽은아들네 집의 가보난 상 우의 마농죽 썩 나도 선게 그거 햅쌀 먹영 감수다” 허연. 죽은 아들은 가난허연, 큰성네 집에서 췌 식궤 허는디. 숭년이 되영. 마농이로라도 낡 죽썩, 지네 사는 집의 구들 어디에나 죽거렁 놔동 불 싸두곡 아마 식궤 먹으레 간 모냥이라게. 계난 그거만 먹영 가노랜허고. 경헨 가멍 “나 손지허나 이번에 도랑 감수다” 경 곤곡, “나 아무군디 보리밭 몇말지기 풀기로 헨 디 알압신디. 그 밭을 우리 죽은 아들 데려강, 그 밭을 이정승이 흥정을 허민 내 어멍 해도 흥정을 허게끔 금질 맨들 거니까 그 밭을 사지건 우리 죽은아덜 병작을 쟁 벌다그네, 모네는 내 당 신크까지 내 저심문새 닭아놔두쿠매” 해 동 가거든. 경 허기로 이제 약조가 뻬다말이여. 이제 식궤 넘어난 날은 죽은 아덜이 이정승을 칭허래 와서난, 이정승 허는 말이 “제사나 ㄱ양 냉겼느냐” “ㄱ양 냉겨수다만은 우리 형수가 아기 업어네 괴역국드레 뭐 놓젠 허당 아기가 거꾸루 박아정 술으레 동가지난 야긴 죽게 되수다” 계난 죽은 말이 맞주게, 손지 하나 돌아가노랜. 경허연 이제 짐정승 죽은아들 들안, 밭을 사레 가난 흥정이 춤되연, 이정승 허는 말이, “우리 아들도 잇곡, 나도 뭐 허주만은 금년 한철랑 네가 수고해그네 니만 벌어먹고 후년부터랑 나 병작행 굴라도라” 그 해 혼철은 짐정승 아들 죽은놈이 밭을 허니까 혼 백섬이 뻬다허여. 이젠 말젠 그제 먹으랜, 작석허영 장만 해지난 쏜로 몇말 허고 술은 칭취 짓고 이정승집의 실영 갔주게. “니한티 이걸 받아먹을거민 내 밭을 그냥 주느냐?”고 “술은 내 먹을거고 쏜은 네 ㄱ져가라” 돌려보내동 그 다음부터 병작을 허는디. 가르지 아니허연. 저심문새 닭아놔두켄 허는 따문에게. 계난 짐정승 허는 말이 경허고 우리 성제 재산은 내가

풀아가야 저심문새를 다 갚으게 되어서니까니 경허건 읍센 행 가난. 경 허난 말젠 춤 짐정심 우로 두 성젠 부재로 살당 경 정 망허고 죽은 아덜은 부재로 살더랜 허여. 경허니 건 묵음으로게 성네집의 아바님 제사에 먹으레 가도 나 도 뵈 해 가져 행 마농이라도 뵈 죽이라도 뵈 가는, 부모적시 뵈동 가는 사름 묵음이 여간헌거라게.

8. 인간 세상 이야기

한경면 고산리, 1989. 8. 1 조사

제보자 : 진등강(秦登江)(여·68세, 고산2리 신동 1938)

— 처음 세상이 생겨나자, 캄캄하고 모든 것이 다 말을 하였다. 하늘 옥황이 이를 다스리기 위해서 닭을 내 보내 울음소리로 세상을 밝게 하고 오누이 대별랑과 소별랑을 보내 각각 저승과 이승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런데 대별랑이 욕심을 내서 저승꽃과 이승꽃을 바꿔버려서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이 차례없이 돼 버렸다—

천지개벽헌 시상은(천지개벽하기 이전 세상을 말하는 것 같다) 사람도 웃고 나무, 풀, 잎사귀도 무조건허고 말을 해났주. 말을 다 곤국 천지가 캄캄이라. 들도 웃고 해도 웃고 캄캄허난 하늘 옥황에서 오누일 보냈거든. 하늘 옥황님이 인간에 내려가그네 인간을 다스려그네 시상을 붉히라 보낸 놈두난, 인간시상이 다스릴 시가 어서. 질도 말 곱아. 돌도 말 곱아. 오만개 다 말 곤고 나무도 말 곤고, 짐을 짓젠 낭 그치젠 해도 ‘아이고 나 살려줍서. 살려줍서’ 막 허난 천지개벽을 어떻 행 허리 허난. 이제 독을 하나 마련해연, 하늘 옥황에서 독을 하나 내려완, 독이 새날때에 가서 꼬끼요 해 가난 시상이 하늘도 나타나고 땅도 나타나고 돌도 나타나고 해도 나타나고 그 독이 꼬끼요 허는 범름에 시상이 붉어진거라. 경한 인간을 다스려 사는디 대별랑 소별랑이 이셔서, 성과 아시라. 대별랑은 성이고 소별랑은 아시. 차례대로 대별랑이란 저심에 들어가서 저심을 다스리라. 이제 소별랑이랑 인간에 가서 인간을 다스리라 허

연 놔두난. 이제 꽃은 피난 저싱에 가는 꽃은 시들주게. 저싱에 가는 꽃은 시들고 이싱에 오는 소벨랑 꽃은 막 발강케 만발허연 피엿거든. 육십 센 성은 아시 눈 곰양이신 벚름에 성이 오꽃 꽃을 바꿔 놔부렀거든. 아시꽃을 이녀이 츠지허고 이녀꽃은 아시신디레 난. 눈을 탁 턴 보난 성이 오꽃 꽃을 바꿔가부난 하늘 옥황이 허는 말이 "아이고 이젠 시상은 다 됐구나". 이젠 츠레배기가 어서서. 노인갈 때 아이도 가고 아이갈 때 노인도 가고 츠레가 없고. 대벨랑 이 꽃 바꿔부난. 대벨랑이 옥황님 궂는 대로만 이녀이 저싱에 가고 아시나그네 인간에 내려 왕 허여시민 츠레로 사름이 아시먼저 가는 법도 웃고 사름이 늙어가는 대로 낱고 죽고 시상이 빙빙 돌아 사는 게 편안헐건디.

9. 모기 생긴 이야기

한경면 고산리, 1989. 8. 1 조사

채보자 : 진동강(秦登江)(여·68세, 고산2리 신동 1938)

- 강남 체시에게는 큰부인과 작은부인이 있었는데 작은부인이 큰부인을 시기하였다. 큰부인이 어느 날 빨래하러 갔다가 고운 꽃 두개가 떠 있는 것을 보고 따 왔는데, 작은부인이 불에 집어던져 그곳에 구슬 두개가 생겼다. 큰부인이 이를 삼키니 아들 두명을 낳았는데 이를 시기한 작은부인이 물가에 던져 죽게 했다. 큰부인이 옥황상제께 이를 하소연하자 작은부인을 말방아에 묶어서 소 아홉마리로 돌리니 몸이 찢어졌는데 심술을 부려 사람을 쏘고 온갖 것을 해되게 하는 모기와 나비들로 생겨났다 -

강남 체시가 각시가 두개 해났주게. 큰각신 이제 막 어질고 경 착허연 조황에 기도도 잘 허곡, 낭군님이 체시 잡으레 가민 그 하간 일이 걸리카부덴 큰각신 조황에도 막 기도 잘 해주고 허는디. 죽은 각신 그게 아니주게. 경현디 큰각시가 물에 빨래간 보난 꽃이 동글동글 두개 곱게 턴 이시난, 빨래허단 내부런 그 꽃을 두개 따오랏주기. 딴 오란 영 질어도서 보주게 행 질어도서

보는다, 흥번은 죽은 시앗이 왕 뵈곤 꽃 걸어져시난 그 심술머리가 그놈을 북끼 튼엉 불에 탁 짚어동 갔주گی. 짚어동 가부난 불화로에 숯 살리젠 영 해보난. 아, 곤 구실이 두방을 동글동글 하시난, 그 구실을 두개 영 헨 ㄱ전. 죽은각신 서방은 체시 잡으레 강 저싱왕에 강 돌아오지 안허고 허난 큰각시네 집의 왕 지신디 안 오람시카부덴 오란 방 서방은 웃고 영 뵈려보난 곤 꽃 시나네 그 심술머리가 북끼치져내 불화로레 짚어부나내 불화로엔 따시 곤 구실이 이셨주게. 큰각시가 그 구실을 주성 콤에 콤엇당 따시 그 시앗년 오란 구실을 들어가카부덴 그 구실을 오물래끼 습겼주게. 습진게 임신을 해서, 아길 뵈게. 쌍둥이 나는 법도 이제 그 때 그 법으로 허연. 큰각시가 아길 나는데 아덜 성젤 난, 쌍둥일 난 현디, 이제 아길 질르고 허는디 죽은각시가 오란. 아기 두개나네 아기 흥나 지 주민 지가 질르켄. 경해도 큰각시가 고딱 안쳤주گی. 안된덴해도 “아고 성님만 질화집니까. 흥나랑 나 줌서. 나 질르쿠다” 해도 안된덴 행 안짱현디 어떻 헨 아기 성제 영 늑져뒤네 물 질레 갔는디 물 질레 가분 트멍에 그 시앗년이 오란, 아기 두겔 오꽃 돌아다네 물가에 강 들이 쳐당 죽여부렀주گی. 큰각신 이제 왕 보난 아기가 셔? 이제 죽은 시앗신디레 간. 막 아기내노랜 헨. 경해도 안보고랜만 빅빅 헨. 이제 그 큰 각시가 몇날 몇일을 밭 부수멍 염라대왕에 들어갔주گی. 들어간 사실말을 곱았주گی. 이만허고 저만허고 아덜 성젤 행 놔두난 죽은집의 년이 물에 강 그추룩 죽여불고 어떻허고 허멍 막 곱으난, 서방신디레도 그런 년을 놔동 뵈느넨. 강 단작 심어 오랜 허난. 심어오진 못허난 옛날에 그 물방애, 그 물방애에 죽은각시 돌아매 영 쇠 아흡으로 막 빙빙 돌렸주게. 돌리난 치져져내 그 심술머리로 년 나비로 가라 년 모기로 가라 했주게, 사름을 쏘아먹젠. 웃이고 슬이고 치져져내 데껴 분게 다 짐승되연. 계난 큰각신 죽은각시 경 해결해 놓고 따시 오란 부부라 살멍 또 아덜 난 키와네 그 아덜이 이제 저싱왕의 꽃관관으로, 꽃 관리허는 관으로 보냈주گی. 저난 이제 어린아기들 죽으민 그 강남 체시 아들 꽃밭의 강 물 뿌리곡 허는게 다 그 꽃의 강 허는거주.

10. 황정승과 고종달

한경면 고산리. 1989 8. 5조사

제보자 :李子榮 (남·91세, 고산 1리 2반 2419).

—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인재가 있고 없음을 시험하기 위해 어려운 문제 거리를 주자, 황정승이 이를 해결한다. 한편, 중국에서는 혈을 끊어 버리기 위하여 고종달을 제주로 파견하나, 지장생이란 물혈을 끊는데 실패하고 목 동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데 그친다—

옛날 우리 한국에서는 고만이 아자도 시상일을 신안(神眼)으로 아는 이가 황정승엔 현 이 밖에는 없었는디. 황정승이라고, 정심으로 살앙. 황간디 황정승 식술은 으라개고(여러 명이고). 그 어른네가 가난허게, 정심으로 살아도 놈의 거 공걸 아이 먹어서 이녀(자기의) 그 똬, 이제 ㄱ뜨민 춤 월급이나 똬 - 쓸 주는 걸로만 먹엉 살젠 허난. 삶도 곤란허게 살아난 모냥이라도 앓은 신안으로 알았는디. 그것이 짝(끝)에 궂는 말이주마는. 옛날 우리 이 섬중에서 제주 할로산(漢孺山)이 신령(神靈)이 좋다고, 산신령 영(靈). 신령이 좋아. 사름도 잘 나곡(나고) 현댄 허난(한다고 하니), 경현댄 허난(그런다고 하니) 대국(大國)서 우리 조선에 사름이 있고 엇는 걸 알아 불라고, 그런 의견(意見)으로, 우리 이 섬중에서 산신령으로 좋은 사름이, 침 뛰어난 사름이 예, 대국도 우리 조선 앞에 뻗기게 된다는 의견으로. 이제 ㄱ뜨민(같으면) 침 간침 모냥으로 된 의미지 거난(그러니). 사름이 있고 엇는 걸 알아 불라고, 잘 난 사름이 있고 엇는 걸 알아 불라고 대국서 생각을 허는디. 대국서 득새기(계란) 둘을 멧 봉을 비봉(秘封)허여 싸 가지고서, 모르계. 멧번, 멧배 비봉허여 싨(사서) 우리 이 조선더래(조선으로) 들어 보내명, 그 비봉에 글 써 보내기를 ‘이 싨곶 엇(속)에 거를 까보지 말아 가지고 똬 있고 엇는 걸 알아서 그냥 그 아는 말만 싸 가지고 돌려 보내시오.’ 그래 이덜로(여기로) 조선을 보내었다 말여. 대국

서 그 우리조선에 아는 사름이 싯고 엇고 좀 거세기헌 사름이 심 어심(있고 없음)을 알아 불라고 그런 의견을 내었던 모양이라, 허난(하니),

〈調査者: 제난 어려운 문제를 냈구나양?〉예. 독새기 들을 몇번 비봉을 허 영 싸가지고는 ‘까보지 말앙 그 쏘곰엇 거 알앙 보내라’고 해서 여기 오랏단 말여게. 보내여, 여길 보내니, 까보지 안여곡(아니하고) 알 수가 엇다 말여게. 이젠 걸 받아 놓고는 이제(요즘) ㄱ뜨민(같으면) 국가의서 모든 신하들이 모다 아잔(모여앉아) 합두리 생각허여 보되 아이 까보고 알 수가 엇다 말여 이거. 이젠 혼 싯해(臣下이)가 아쟈단 곤는 말이, 그런 게 아이라 저 황정싱엔 현 이 가, 어른이 잘 안다 허니 그디 강(거기 가서) 혼 번 의논허여 보쿠다(보겠읍니다), 허거든 허난. 그럴 일이라고 해서. 이젠 그 황정싱을 좃안 가서. 좃안 간 후제는(후에는),

“의논헐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뭇 말이나?”

고 허니.

“대국서 뭇을 보내엿는디, 피봉헌 것을 까보지 말아 그래(거기에) 그런 아는 말만 해서 글썽 돌려 보내라 해서 대국서 왔는디, 원 아이 까보고 알아 볼 수가 없어서 정싱님안틱 오랏습니다.”

마, 이애길 현 모양이라게. 이제 황정싱 허는 말은, 거 아는 어른이난, 싯안이난,

“아, 거 독새기 들이 오랏다”

고. 경(그렇게) 허거든.

“독새기 들이 오랏는디, 하나은 독(닭)이 되연 나오고, 그 소곰(속)에서도. 하나는 독이 되여시되 거죽(가죽, 껍질) 배젓될(밖에를) 아니 나오랏다고 해서, 글 싸가지고 보내여 불라.”

고. 이젠 오란, 들은 사름이 오란, 국가의 오란 그말 ㄱ르니, ‘하나은 독이 되여근(되어서) 나오랏고 하나는 독이 되여시되 거죽 배젓될 아이 나오랏다’ 해서 글을 싯 대국을 보내엿다 말여. 그걸로 돌려 보내엿다, 돌려 보내니까니

高山里 學術調查報告

간 보니 원 까보든 아니허극 흠 경허연(그렇게 해서) 보내엿거든. 이제, 이제 거기서 지네(자기네)가! 현 거난 깐 보니까니 흠 하나는 득이 되여 거죽 배졌디 채 아이 나오고 해엿다 말여. 허니 대국서 생각이 '하 조선에 이렇게 아는 사름이 이시면은 우리 대국이 조선안티 뺏기게 되엿다' 고 거기서 생각이 되엿다 말여. 아니 이제 '또로(다시) 알아 불라고(봐야지)' 해서 대국서 공격새라고 현 새, 공격새. <調査者: 공, 공격새 마씀?> 으, 공격새라고 현 새. 공격새엔 현 새가 대국밖에 없어난, 없인 새 모양이랴어. 우리 요새 몰라도. 그 새를 다신, 그 다음은 조선으레(조선으로) 또 보내면서 허는 말이 '이 새를 석덜(석달)간만 잘 멕여서 술지와 그네(살찌게 해서) 돌려 보내시오'해서, 공격새 보내엿다 말여. 허니 조선서는 이제 그 새 먹는 식량은 모르고 잘 멕영 보내여 불젠(버리려고). 그걸 기영(그렇게) 아니 허며는 나무, 대국서 나무림(업신 여기는) 말을 듣주기게(듣거든), 그디(거기) 사름 으신(없는) 디라고. 그런 말 들어질 걸 아무던 모아 앗으민 그, 그 생각이 어서, 허난. 이눔으 새 술지게 멕영 보내젠 멕여 그네 술지왕 보내젠. 술을 쥐도 안먹어, 밥을 쥐도 안먹어, 죽을 쥐도 안먹어, 원 풀을 쥐도 안먹어. 케길 쥐도 안먹어. 원 아무것도 원 쥐보되 아이 먹거든. 아이 먹으니 석덜간 질루앙(길러서) 술주앙(살찌게 해서) 보냄보단도(보내는 것보다) 멧일 새에 새가 굶지왕(굶겨서) 죽게 되엿단 말여, 이제. 허니 그때에 황정심이 죽어 분(버린) 때라게. 그 생이(새를) 보낸 때는. 아이, 모다 아잔 이제 다 만조제신(滿朝諸臣)이 모다 아자서 국가(國家)의서 원 생각을 해여 보되, 이눔으새 먹는 식량을 몰라. 먹는 것을 모르니, 새를 잘 질루앙 보냄보단도 죽여 불게 되엿다 말여, 굶지 우니까(굶기니까). 이제 근셋말과(아까한 말과) ㄱ찌(같이) 혼 사름이 앗앗다 허는 말이,

“황정심은 죽어 비여십주만은(버렸습시다만) 황정심 부인네 안티 가서 뭐 들은 말이나 있수과? 강 들어방(들어보고) 오켄(오겠다고).”

허난. 그럴 말이라고 해서. 하나(한) 사름이 그 황정심 집안의 그 황정심 부인 안티 갔단 말여. 말허기를,

“정성님 신(제신) 때에도 먹을 거영(것이며) 어려왕(어려워서) 곤란허게 살았

는디, 정성님 죽어 불고 허여 어떻 살아접십네까?”

해서 인설(人事物) 드러 놓고,

“정성님 죽어 갈 때에 ‘어떻허민 나 죽어 비여도 살아진다’허여서 들은 말이나 이십네까?”

허여서 말을 들었다 말여. 정성 부인네가 말허기를,

“들은 말은 있수다.”

허고,

“뭔 말입네까? 뭇엔 들음데가?”

허니,

“우리가 말허기를 놈의 정성덜은 잘 먹고 잘 입고 펜안히 살되, 집의 정성님은 어찌허니 그렇게 당신도 굶어 살고 우리꺼지 경 굶어 살게 험네까?허니, 정승, 집의 정성 산 때 허는 말은 ‘궁적새라 현 새도 독거미라 현 거미를 녹(祿)으로 태와서(타고 나서) 잘 먹고 살지마는 나는, 그, 그새만도 못허여 태운 녹이 에, 별반 없기로 그렇게 곤란으로 내가 살되, 나 죽어 비어야 집안 식솔덜은 먹을 녹이 돌아와서 살아진다’라고 허연.”

이제 그 말을 들언, 들은 사름이 돌아 왔다 말여. 돌아 오라 이젠 백성을 풀어 놓고,

“독거밀 심어(잡아) 오라”

고. 독거미라고 큰 거미가 있지. 큰 거미 중에도 거, 거 일름이 독거미라는 거매(거지). 그 놈을 심어다가 새에 가 썰 주니, 아 이걸 후려 먹나 말여, 독거밀 먹어. 제난 그 거밀 잡아다 낭(놓고) 서낙덜을 잘 맥영(먹여) 서낙달 되 난 돌려 보냈다 말여. 간 보난 새도 슬졌고, 그러니 대국서는 새 먹는 식량을 몰라서 살령(살려서) 보내지 못할 거라고 해서 걸 보내였는디, 벌써 알아 가지고 보내였다니 이젠 독새기 미봉허연 보낸 것도 까보지 안허연 알안 보내여, 궁적새를 먹는 식량 모르카부덴(모르는 줄로 알고) 허연 잘 질루왕 보내라 허니 먹는 식량을 알아서 잘 멕연 술지완 보내여. 허니 거 사름이 조선에 있는 디 아이라. 겨단 다음에 대국서 생각이 “조선에 이렇게 아는 사름이 시면은 우리

대국을 조선안티 뻗기게 되니까니 제주 가서 할로산(漢孺山) 혈(穴)을 다 떠블라"고. 할로산 혈을 뜨래 누굴 보냈는고 하니, 고종달이라 현 사름을 보냈다. 고종달이라 현 사름. 지지박서(地誌博士)주계, 땅엿 일을 잘 아는 사름이난, 고종달이 보고 제주 가서 할로산에 가서 혈을 가 떠방 오라, 대등떠블라고. 이젠 고종달의 아들이 제주 할로산이 그 뵈, (Tape를 갈아 끼우느라 잠시 중단) (調査者: 물태를 보명양.)에. 할로산을 밤이나 낮이나 질 몰랑으네, 할로산 질이라도 질 몰랑으네 땡기질 안여는 사람이거든. 늘 살아노니까. 계단 혼 번은 보니, 질래예 늘 땡이는 익숙히 땡이는 땅이난. 안이 봐난 계 땅에 꼬주와 졌거든. 그, 고종달이가 오란 혈 뜨젠 이, 땅에 침을 쇠에 써나 난 침으로 그 혈, 혈을 죽일라고 꼬주와 둔 거라게. 꽃으단 고종달이란 놈이 혼 펜드레 아 마 고쳐산 ㄴ룬디, 그 할로산의 ㄴ시(마소)보명 사는 사름이, 침가가 침가재가 땡기단 보난 꼬주아 졌다 말여.

"아, 이상헌 계 꼬주아 졌구나."

이 놈을 혹 동기연 봤어. 확히계 봐련 보난 피가 벌겍게 붙었거든. 붙어시나 네 그래 땅의 그자 미안허난 폭 땅에 질러둔 혼 펜의 가비였다 말여. 가는 걸 고종달이가 어디서 본 모양이라게. 이제, 그 사람을 부르거든.

"당신 이레 오라."

고. 아니 올 수 엿어 오난.

"이디 어떤 딘디 당신 이디 꼬주아둔 걸 빠봤느냐?"

고허니. 그 침가재가 허는 말이,

"내가 그런 거 아니라 이, 산 모쉬 보명 이 꽃되서 윈 날마다 익숙히 땡기 명 사는 사름인디. 윈 난 데 없이 뵈이 꼬주아져 있길래, 동기 봤소."

허난.

스못 설이 스못 죽어 붙든 안연 거라, 썩썩 살앙 있는 모양이라. 계난 그 고종달이 허는 말이, 곤는, 고종달이연 현 사름이 허는 말이 그 사름보고 말 허기틀, 그러겨들랑. 그 ㄴ곳되에 큰 나무가 있었대요, 쿿남. 쿿남이란 낭이 아조 오랜 낭이 있는디. 고종달이가 그 사름 ㄴ라 허는 말이,

“이 나물 집짓는 지등으로 삼아서, 이걸 지등으로 삼아서, 굶치지 말앙 그냥 톨톨 가지영 가지영 톨톨 다듬아동 이 낭을 굶치지랑 말앙 그냥 땅에 신 낭 지등을 삼아서 이디서 막살이라, 움막이라도 메여서 비올 때랑 살멍 모설 보시오.”

영 허거든. 그건 설 있는 디라 말여게, 그디, 그디가게.

이젠 경허여똥, 경 곶아돈 고종달이는, 다시 혈을 뜨레 어디 오랐는고 허니 지장쌈잇물이라고 저, 정윳 서귀 넘어가민 지장쌈인엔 현 디 이서. 쌈수가 큰 내 모냥으로 밤낮을 누리는 물이라 말여. 그 지장쌈이 물설을 또 뜨레 왔어요. 뜨레 오란 보니 오게 되나네, 그 물 물설에 물설 구신이 옛날 거 미신덜 미신덜 이실 때난 미신이 있던 고라, 물설엿 구신이 나오란. 즈끗되 밧가는 사름 이시난 물설이 말허기를, 우리 쌈사람 모냥으로 간 후제는, 밧 가는 사름보고, “나를 좀 곱정 살리게 해달라.”

허거든.

밧 가는 사름이,

“누집니까?”

허난,

“나, 지장쌈잇물설, 혈구신인디 나 혈을 뜨젠, 목숨을 그치레 오는 사름이 이시니, 날 곱졌다그네 그 사람 가 불결랑 살려달라.”

고.

“어떻 허영 곱집니까, 곱집니까?”

허난.

옛날 행기라헌 게 있었어, 낫사발. 이제 고뜨민 국먹는 사발고뜨 거. 낫사발 고뜨 거 그런 걸 행기라 허였주. <조사자: 뭐라 마씀?> 행기, 행기라헌 것은 밧가는 사름이 물 먹젠, 물이나 거려서 거려당 먹꼭 허젠 아마도 그럴, 그러서 밧가는 디 봐두, 고져란 봐똥단 모냥이라. 물설 허는 말이, 경 마르멍.

“저, 행기 마경 가그네 물 나오는 딜로 가그네 행기로 확허게 거러민 그디 바싹 톨라 불 거니까니, 행기로 물하나만 거랭오랑 어디 곱졌다, 그 사람 오

라 가불거든에 그레 다시 비와 달라”

고, 허저든.

이젠 얼른 돌려간, 행기 ㄱ져 간, 물 나는 고개 바로 들어 간 확 행기로 하나 거리난, 그디 파씩 몰라부렀다 말여. 신령으로 허는 일어난게. 몰라부난 ㄱ져간 그 물을 어디 곱졌는고 허니, 쇠질르매 지원 갔단 밧 갈 때 되난 지르매 밧전 담우외 턱 걸쳐 된 밧을 가는다. 그 지르매 속에 톱허게, 그 지르매는 이 도굴매영 있는 거 아니라, 옛날 지르매는. 그 아래 톱 곱전 나뒀다. 영, 쇠지르매 아래 곱졌다 말여.

이젠, 고종달이엔 현 놈이 그 지장샘이물엘 오란 보니, 아 파씩 몰라부렀단 말여게. 허난 아무리 찾아보되 그거 그디 맞음은 현디 찾아 본디 물설이 엇다 말여게, 물 죽어부니까. 이제 밧 가는 사름신디 간 후제는,

“당신, 이디 저 지장샘이엔 현 물이 어디 있소?”

허닌. 밧가는 사름이,

“무사 그걸 좇암수가?”

허난,

“물, 그리와서 물 조금 먹젠 보니, 물 좇지 못허겠다.”

“아이고, 그 물 모르건디 오래였소. 그 생수가 아니라, 산에 비 아이 오나 허민. 구녕으로 나오는 물이난 메칠 웃어도 몰라불수. 그 물 이제 바삭 물랐도” 게. 지도 베렐 보러 가보니, 그말이 맞거든, 바씩 몰라부렀다 말여게. 게난 고종달이도 아는 사람이지게. 겐 이제, 게난 ‘이디 고부랑낭 아래 행기수라 현 물은 어디 있느냐’ 허니 듣거든. 밧가는 사람 ㄱ라. 거 아는 사람 아니라. 쇠질매 고부랑낭 아래 곱져 뒀거든.

“저, 당신 어딴 사람이요?”

허저든. 밧가는 사람 궂는 말이,

“나는 이곳되서 나고 이리 예순, 육십 넘도록 살아시되, 내 본지방에 살고 그렇게 연륜 영 하영 이제도록 살아신데 원 고부랑낭 아래 행기수엔 말 들어 본 디도 없다고, 당신 그 희여뜩헌 말 현다고, 그런 물 여기 엇다고.”

허다네 이젠 고종달이엔 현 놈이,

“에, 못쓰겠다. 이 문세가 회여뜬헌 거고른”

헨, 어디서 그 문세영 불 소리두곡, 자국 고향드레 가비였다 말여.

이제 불 소리두고 나가난, 밧 가는 사람이 이젠 그 사람 가부난 그 물 나
오라난 밧의 간 거려난 딜로 간 물을 간 탁 비우난, 물이 탁 탁 탁 다시 느런.

그래서 그 헐을 못 떠서 고종달이가 나가비였다 말여. 나가불고 그 정의 그
감목 집가의 집의 묵쉬 보는 사름은 그디 그 사람 곤는 대로 막살이 매연 비
울 때에 그디 살영 묵쉬 봤주게. 봐 가난 어멍 어멍 돈푼사 봉가 전디, 가래
물, 줌매물 가래, 줌매물 하나 샀어, 줌매물 이녀 물로 산 후제는 그 ㅈ찌 보
는 물르레 두래 부젠 보آم다 말여. 보아오니 이제 이 물이 새끼를 배연 나난
즈맬 낱거든, 그 물이, 이녀 물이 즌매를 나니 자꾸 즌매만 나. 새끼도 욱양
새끼 낱게 되민 즌매 나, 즌매 나. 자꾸 즌매만 나. 물이 벌어질 거 아니라게.
<조사자 : 즌매가 뭐시라 미썸?> 즌매 암말이 주게, 암물.<조사자 : 아, 암물>
물을 하나 사난 새끼 나난 즌매 몽생일 나난, 또로 그 켜 새끼 낱게 되언크난
또로 나는 게 또 즌매 나. 즌매만 나난 자꾸 나가민 물이 벌어질 거 아니라.
응매물은 새끼 웃일 저주마는. 이제 물이 으나 바리 되거든. 그렇게 허당도
이녀 물은 하나토 없이 전부 일러부려. 함무리 묻는 구석 잇이 아는디 찻아보
져 허여도 영 일매도 못 찻아. 못찾오나게 낙심이 될 거 아니라.

“아, 내가 원 빈복헌 복력이로고나 원. 물 나날이 그렇게 으라 바리가 되연
살아 지카부덴 허난 이역 물을 이영 잃어부니 안되였다.”

고 허여서. 이제 흘 수 잇거든. 혼 삼년사 된디, 혼 오년사 된디 허난, 잃어
불건디가 되였는디 혼번은 비가 즌연스로 오는 날인디. 집에 아갓더니러니,
물떼지기 먼 올래로 집앞으레 들어 오는 거 보니까니 여라 바리가 들어 오라
가거든. 들어 오는 거 보니, 앞의 수창 산물이 처음 산 물이라. 이녀 물이라.
막 새끼 치중허영 나오란 벌어전 집. 이제춤 딱 들어 오랏단 말애.

그 헐에 집 짓어 노난, 그 신령이 그렇게 되였던 모양이라.

이제는 그 사름이 이 물을 다 잡아 먹을 수도 잇고, 누계 사서, 사갈 사름

도 엇고 혈 거니, 에 나라의 이젯 말로 임금·대통령이엔 현 말 이젠 허주마는. 옛날은 임금이라 하여서. 나라의, 임금 앞의 간 진상이난. 진상이라 현 건 선사품이라 말여. 몰 멧 바릴 몰안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저기 몰이 요라 바리 되길래, 임금님앞의 선사 바찌레 왔습니다.”

고.

“고맙다”

고, 이젠 임금허는 말은,

“멧 허는 사람이냐?”

고 허니

“내가 산 믱쉬나 보멍 괴롭게 사는 사름인디, 내가 몰 여러 바리 되길래, 임금안티 몰 바리나 몰아 오랐습니다.” 허난. 이젠 그때예 정의 짐칩의 그 국가의 그 임금이 감목이라 현 베실을 줬다 말여. 그 사름 ㄱ라.

“내 더 혈 거 어시니, 감목 감목이라 현 베실을 주건 허영 강 살라.” 고, 허난. 감목 베실 벌언 오란 살아 오는디, 그 혈에 집 짓언 츠 츠 츠 츠 되여 가는 게 큰 부제가 일어나서. 츠 종 다 들고 훌룽케 살았주, 정의 짐칩의서.

허난, 그때 고종달이가 와서 그 제주 혈뜨레 오란 간 그눔은 후도 어서 그 나한 죽어비였주마는. 그래서 그 때에는 이제 마츰 촌에 사름 죽엄 영장을 묻젠 허민 하간 선세품덜 상패덜 뭐 난닝구나. 신발이나 밧덜, 수건이나 담배나 사주멍 선사허듯, 그게 그만 버릇이 된후젠 국가의서 검은 물을 가래몰이라 했지. 가래몰을 검은 물. 검은 물, 검은 쇠 진상허라고. 국가의서 자꾸 그, 이젠 말로 공출허듯 자꾸 바치랜 허멍 허여난 법이 있었주제, 그게 버릇되연.

경허연 정의 짐칩이 감목관 그 베슬을 벌언 훌룽케 잘 살아난 일이 있주허난. 우리 조선에 사는 사름이 황정싱엔 현 사름이 하나, 황정싱 따문에 그 생이도 보내난 먹는 식량 모르카부덴 공작새 보내난 잘 맥연 보내여. 독새기를 보낸 것도 비봉허연 멧번 썩 거 까보지 말앙 보내라 현 절 알안 보내여 허난 대국서 우리 조선을 문문히 알지 안허여난, 못허여났주.

信 仰

目 次

- I. 概 觀 2. 個人信仰
- II. 民間信仰 III. 宗 教
- 1. 部落信仰 IV. 맷음말

I. 概 觀

高山里는 北濟州郡 翰京面에 속해 있으며, 한경면에서도 가장 서쪽에 위치한 부락으로 면적 2.493 km 로 해안에서 산간까지 넓게 자리잡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50여 개의 반에 고산 1, 2로 나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1개의 자연부락을 이루고 있고 면적이 넓다보니 부락간의 거리도 1.2km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고산리 주민들의 생활은 제주도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반농반어의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부락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심지인 일주도로변에는 농업과 상업, 잠수업 등에 종사하고 있지만 잠수업은 점차 줄고 농업과 상업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중산간인 전담동, 신물동, 신수동에서는 농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해안촌인 자구내는 농사도 짓지만 어업을 주생업으로 삼고 있다.

그들의 신앙의 실태를 보면, 민간신앙으로 儒式部落祭인 포제와 임시제가 있었는데 사라진 지 오래고, 巫俗部落信仰인 당독잇당과 선왕당, 그외 다른 부락에서 이사오면서 가지고 온 가짓당으로 소록밭당, 조름에동산당, 뒷동산당 등이 있지만 지금은 선왕당을 제외하고는 폐당상태이다. 공인종교로는 법당이 셋 있고 교회, 천주교회가 각각 하나 있으며, 유사종교인 천지대안교와 미륵도가 있다. 그런데 민간신앙의 영향력이 많이 상실되고 있는데 비해 공인종교의 신도수는 늘어가는 실정이다.

조사기간에 이 마을 부락신앙인 당 본풀이가 조사되지 못해 진성기씨의 “남국의 무가”(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에서 발췌하였다.

이번 조사는 조사 기간이 짧고 조사자의 능력 부족으로 부락신앙과 공인종교에 대한 조사에 중점을 두다 보니 개인신앙이나 풍속에 대한 조사가 빈약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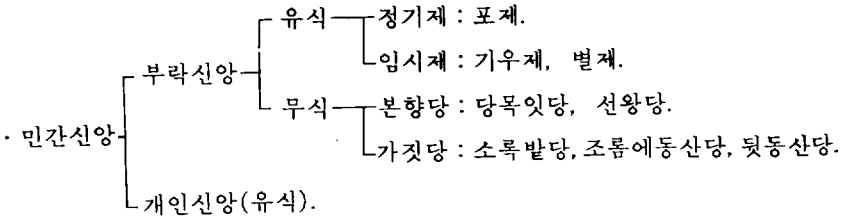
II. 民間信仰

일반적으로 민간신앙을 분류할 때, 기도하는 대상이 부락이나, 개인이나에 따라 부락신앙과 개인신앙으로 구별된다. 부락신앙은 다시 남성 중심으로 유교식 제사 방법에 따라 제를 지내는 유식부락신앙과 당을 중심으로 무당에 의해 진행되는 무식부락신앙이 있다. 전자에는 포제나 마을제 등이 들어갈 수 있겠고 후자는 본향당을 기점으로 진행되는 당굿이 있다. 개인신앙 또한 제 지내는 방식이 유교식이나 아니냐에 따라 유식개인신앙과 무식개인신앙으로 구별된다. 이러한 민간신앙 분류 방법에 따라 고산리 민간신앙을 분류해 보면, 고산리의 유식부락제로는 정기적으로 매년마다 행해지는 마을제인 포제와, 가뭄이 들거나 병충해, 전염병이 심한 해에 임시로 제사를 지내는 기우제, 벌제와 같은 임시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포제는 사라진 지 40년이 지나고, 임시제 또한 10년전에 사라져서 지금은 마을제가 없는 실정이다.

무식부락신앙인 본향당으로는 고산리 전체 주민의 생활을 관장했던 당목잇당과 자구내 주민들에게 본향당 구실을 하고 있는 선왕당과 그의 가짓당으로 소록발당, 조름에동산당, 뒷동산당 등이 있다. 당목잇당은 주부들 중심으로 일정한 신도는 없고 다만 비념당 역할만을 해내고 있고, 본풀이도 제대로 전수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가짓당들도 단골이 이사가거나 미신시하는 바람에 지금은 폐당상태였다. 이에 비해 선왕당만은 지금도 그 마을 주민의 정성이 지극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당의 기능이 그들의 생업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개인신앙은 조사된 것이 별로 없다. 유식개인신앙으로 토신제와 맹감제가 조사되었지만 이것 또한 지금은 행하는 집이 거의 없다.

전체적으로 고산리 민간신앙은 유식부락신앙은 사라진 지 오래고 무식부락신앙 또한 선왕당을 제외하고는 점차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에서 분류한 고산리 민간신앙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部落信仰

1) 儒式部落信仰

고산리 유식부락신앙에는 포제와 임시제인 기우제, 별제가 있었다. 포제는 1940년대 일제탄압과 생활의 변화로 사라졌고 임시제도 생활의 변화로 1960년대 말에 사라졌다. 그래서 생존한 재관이 없어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이 조사되었고, 홀기와 축문은 분실되어 조사되지 못했다.

(1) 정기제(포제)

① 祭名: 酺祭

② 祭神: 酺祭之神

③ 祭日: 음력 정월 중에 택일

④ 祭場

ㄱ. 명칭: 포제동산

ㄴ. 위치: 새왓동네에서 200m 동쪽으로 떨어진 야산에 위치한다.

ㄷ. 형태: 반원형으로 돌담이 둘러있고 그 안에 제단이 있다.

⑤ 齋戒

선출된 제관들은 제일 일주일 전 향사에서 합숙하며 포제동산 밑 은물이라는 곳에서 목욕제계를 한다.

⑥ 祭費

ㄱ. 공동부담

ㄴ. 신혼인 남자에게서 동접례라 하며 2냥을 받음.

ㄷ. 해마다 몸을 따서 호구별로 나누는 풍습이 있었는데 띠 몸이 나누기에 적을 경우 재비로 충당.

⑦ 祭物

ㄱ. 米類: 稻. 梁. 麥. 稷

ㄴ. 犧牲: 椶 돼지

ㄷ. 果類: 밤, 대추, 감, 배, 유자 등

⑧ 음복

제가 끝난 뒤 동네 어른들에게 출발한다.

(2) 임시제

임시제에는 기우제와 별제가 있었지만 10년전에 미신시하여 사라지고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

1) 기우제(祈雨祭)

가물때 드리는 제사로 포제와 비슷한 형식으로 지낸다.



〈포젯단〉

- ① 祭名：祈雨祭.
- ② 祭神：서해용신 (지방-서해용 신지위)
- ③ 祭日：일정한 재일이 없고 가뭄든 해 정시에게 부탁해 날을 정한다.
- ④ 祭場：수월봉 정상 100평 정도 되는 땅으로 평지보다 20m 정도 높은 곳이다.
- ⑥ 祭儀管理：지형적 원인으로 서쪽이 동쪽보다 자주 가뭄이 든다고 한다. 그래서 고산을 비롯하여 무릉, 신도, 영랑 등이 가뭄의 피해가 크다. 그래서 이 세마을이 공동으로 향회를 열고 재관을 선출하며 준비도 공동 총당하여 기우제를 지낸다.
- ⑦ 祭場
 - 매류：좁쌀밥(2), 백미(2)
 - 犧牲：돼지.
 - 기타：과일 등

- ⑧ 禁忌 : 제장터는 금장지로 만약 장사를 지내면 가뭄이 든다고 한다.
- ⑨ 豫兆 : 기우제를 지내면 '돛배 씻는 물'이라도 반드시 내린다고 할 정도로 영험이 있다.

ii) 別祭

- ① 祭名 : 別祭 및 虫祭
- ② 기능 : 충을 제거한다.
- ③ 祭場 : 망동산(망압, 평평압이라고도 하는데 당산봉 해안 병풍암 앞)
- ④ 豫兆 : 제를 지내면 까마귀가 나타나 굶뎡이를 잡아먹는다고 전한다.
- ⑤ 제관선출 齊成 등은 포제와 유사하다.

2) 巫式部落信仰

심방에 의해 부락의 평안을 기원하는 무식부락신앙은 본향당을 기점으로 행해진다. 고산리인 경우는 마을 어귀에 있는 당목잇당이 이 마을 전체 본향당이며 그 외에 다른 마을에서 이주해 오면서 가지 갈라온 가짓당 세 개가 있다.

이 마을 무식부락신앙의 특이한 점은 당목잇당이 본향당이지만 해안촌인 자구네와 한장동에서는 이 당을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구네는 개당이라는 당을 본향당으로 여기고, 한장동은 신도에 있는 으드렛당에 다니고 있다. 이것은 생업의 차이와 본향당과의 거리 때문이라 생각된다. 자구네의 경우 고산리 다른 부락과는 달리 어업을 주된 생업으로 삼다보니 그들의 신앙도 생활과 관련된 것이고, 한장동은 행정구역상 고산리에 소속되어 있지만 신도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다 보니 으드렛당에 다니게 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 마을 당목잇당은 본향당이지만 지금은 마을의 일을 관장하기 보다 아녀자들의 비닐당 구실만을 해내고 있다.

그외 가짓당으로 삼구에 있는 소록밭당, 신수동과 칠전동 사이에 있는 조름에동산당, 칠전동에 있는 뒷동산당 등이 있지만 대부분 다른 주민에게 확대되지 못하고 단골들마저 이사를 가거나 돌보지 않아 폐당상태이다.

(1) 본향당

1) 당목잇당

당이 만들어진 뒤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만 그 영험에 힘입어 제일과 제물, 특히 삼가해야 할 제물만이 전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당에서도 주민들은 당목잇당의 당신을 다만 할망 하르방이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당신의 정체와 당의 유래를 모르고 있었다.

이 당의 당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록이 「東國輿地勝覽」에 나타나고 있다.

…俗甚忌蛇奉以爲神見則呪不敢驅教春秋男女具酒食會遮蹄堂其神…居壁椽群蛇盤結祭時以下見爲祥…

여기서 당목잇당이 뱀을 모시는 당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진성기씨가 조사한 이 당 본풀이에서도 법서라는 목동에 의해 발견되어 좌정한 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보아 이 당의 당신은 뱀이라 생각된다.

이능화의 「조선무속고」에는 이 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是月 禁禦乘船又於春秋男女群聚廣壤堂遮蹄堂 具酒肉祭神 又地多蛇蜈蚣 蒼見灰色蛇則以爲遮蹄之神琴不殺…

여기에서도 당신이 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당의 위력이 광양당과 견줄 만큼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당시에는 당집도 있고 신도도 많은 당이었겠지만 일제탄압과 새마을 운동으로 여러번 파괴되어 보수되었다. 지금은 당집도 없이 2,3평 정도 돌담을 두르고 주위를 나무로 감추고 있으며, 돌담 안에 제단을 만들어 방치된 상태이다. 그리고 아녀자들 중심으로 비념당 구실을 해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당 주위에 많은 붉은 기왓장이 발견되고, 주춧돌로 사용되었을직한 크기가 일정한 돌이 여러 개 발견됨으로 그 부근에 당집이 있었음을

高山里 學術調查報告

알수 있었고, 당이 있는 오름을 당오름이라 부른다거나 당 가까이 동네를 당목잇이라 부르는 주민들의 의식에서 그 당의 위력이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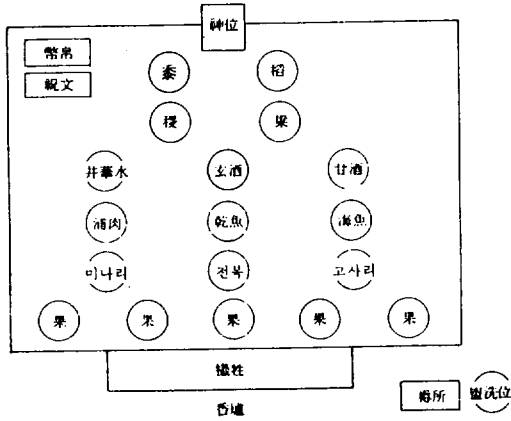
- ① 堂神 : 法師龍宮都(법서용궁또)
- ② 堂名 : 할망당, 하르방당
- ③ 본풀이

㉠ 옛날 법성이란 이가 검은어로 해풍하네 갔단 보니 난디웃인 무쇠쇠갑이 올라오난 이게 은인가 금인가 하고 지여단 저 당오름 팽풍기정으로 쟁길 처 존 달로 맺날 매칠을 놔 두어야 올릴 수가 없어 하를 날은 황구 도끼로 이게 뵈고 법성이가 깨집으난 깃발 벌린 용궁이 들었구나. 아이구 잘못하엿쑤다. 귀신이우 생인이우과. 허배를 혼다. 동의와당 청용머리, 서의와당 백용머리 깃빨전 혼 황구렝이가 나오니 낭도 음점 울도 음점 호적 초지 장적 초지 밑을 초지 민초지 내초지라 미상이나 신랑이나 신부가 넘어가젠 하여도 풀밭이 절영 못 넘어가곡 하도 솟도가 넘어가젠 하여도 몸이 아팠 못넘어 가니 이 당 앞을 넘제하민 하멜하곡 탕갱이라도 속곡하영 절을 하여사 무서히 넘어가곡 하니 민초지 마을 마지 혼 토지본향 한집으로 좌정 하엿쑤다. 이 당 법서용궁할오방은 또시 신창 검은 밑광 용수 곳새앗으로 가지 갈라간 삼본향 한집님이 됩니다. (김기연, 女, 71)

㉡ 고산 당산봉 머리 솟제 중허리에 좌정 하엿쑤다. 입즈개축, 점즈개축, 갑즈개축, 병즈개축 물이 즈자 잠자용궁(배육선앙 자구내 개당)이자 천리사 만리 낭도 초지 물도 초지 호적 초지 장적 초지, 오개일통 모을초지, 아자도 천리사 : 만리 수만리를 그늘 주곡 모든 백성이 해 넘어가민 고장쑤 고장메에 기재옥 녀매화석 물래물석 ㄴ는 대구덕에 뿔뿔갈어 맹심불망 우로 적산호고 보민 즈손들 편안하곡 밑을이 편안 합니다. (이축자, 女, 77)

- ④ 위치 : 고산리 입구 당오름 밑 나무가 무성한 곳에 위치한다.
- ⑤ 祭日 : 축일당이고 정월 초하루에 큰 굿을 한다. (제일은 이 당의 설립일이 축일인 데서 비롯됨)
- ⑥ 祭場
- 메뉴 : 메3(할망, 하르방, 올래각씨)

- 祭需：바닷고기
- 祭酒, 과일(삼채：사과, 배, 토마토)등
- ⑦ 제의집행자：무당 변복영씨(女)
- ⑧ <圖1> 제물진설도(비념굿)



<당목잇당 제단>

II) 개당

가짓당이었지만 자구내 주민들의 생업을 관장하는 당이고, 주민들 대부분이 당목잇당에 다니지 않고 이 당에 다니기에 본향당 구실을 한다고 보고 본향당으로 분류했다. 고산리 다른 당들에 비해 주민들이 집안 제사 때마다 당을 찾는든지 제일을 꼬박꼬박 지킨다는 것에서 신앙도가 두터운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堂名 : 개당, 선왕당

② 祭日 : 매달 초하루, 보름으로 시간은 일정하지 않다. 당이 포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썰물 때 언제든 찾아간다.

③ 祭場 : 메(1), 제숙, 제주, 과일.

○ 선주들은 돼지고기, 과일 등을 올리기도 한다.

○ 제사나 명절 때 제 지내기 전에 제물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제 지낸 뒤 당에 올린다.

④ 제의집행자 : 큰 심방이 없는 비념당이고, 어부들 중심으로 정월에 무당을 모셔다가 큰 굿을 한다.

⑤ 위치와 형태 : 동네어귀 포구 북쪽벽에 여러가지 색천이 걸린 작은 나무와 그 밑에 1평 정도 시멘트로 된 단이 있다. 단에서 1m 높이에 절명하는 돌이 있다.

⑥ 유래

○ 계보자의 시아버님이 우도에서 이사오신 후, 어딘지는 모르지만 나뭇가지를 갖고 와 모시기 시작하면서 뱃일이 잘되자 본향당으로 확대했다고 한다.

○ 당목잇당 가짓당이라고 한다.

⑦ 본풀이

① 물이 차자 장자구내 선왕본향 초호로 보름에 상 받는 아기씨 선왕본향. 엄쟁이로 가지 갈라단 고씨가 설연훈 당이우다. 대배여기 소배여기 증수, 괴깃배에 댕기는 본향이우다. (강을생, 女, 74)

㉠ 옛날 강안도서 배를 짓어오난 가지 못하면 자구내서 돈지할망은 무우
남가지 호나를 격어서 저기 위호난 가는 선도 내 초지, 오는 선도 내 초지
하는 뱃서당 본향이우다. (김기연, 女·71)

㉡ 알로 노른 개당한집, 개영으로 좌정시켜 상선에 상어제기, 상증수, 중
선에 증어제기 증증수, 하선에 하어제기 하증너 초호를 보롬에 제명공년 반
단 영급 좋고 수덕 좋은 개당한집님. (좌군타, 女, 55)

(2) 가짓당.

대부분 마을에는 마을의 일을 주관하는 본향당이 있다. 그 당에 다니던 사
람이 다른 고장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본향당의 나뭇가지나 흙 등을 가지고와
정결한 장소에 안치하여 모시는데 이것을 가짓당이라 한다. 가짓당은 단골만
의 독점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그 영험이 좋으면 누구나 찾아가 비념할 수 있
는 개방성이 있기 때문에 가짓당이면서도 본향당 구실을 하는 당도 있다. 개
당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당을 제외한 고산리 가짓당들은 찾는 사람이
드물고 단골조차 이사를 가거나 돌보지 않아 폐당상태이다.

1) 소록발당

① 위치 : 삼구 고사리오름동네

② 祭日 : 축일

③ 祭物 : 메(3), 군고기(생선), 채소, 제주, 종이(3), 실과

④ 本堂 : 손도물(판포) 짐씨 할망당에게서 흙을 갖고 와서 모신다.

⑤ 신앙인 : 한계 고씨를 중심으로 모셨지만 그 집안이 최근에는 미륵
도를 믿으면서 폐당상태에 있다.

⑥ 본풀이

① 널개 축일 본향 짐씨할망광 오일본향 정씨할오방이 처음에 부부간으로
혼인인장을 시켜줬는데 호르는 부인이 유태7전 돛과길 먹구정 호연 통시어
간 돛술을 하나 매연 콧구가에 질러난 먹은간 썩난 호난 남펜이 부정호던
살력을 갈르고 할오방은 하늬보름 펜이 좌정호고 할망에 자손들이 가쟁호던
돛과기도 아니먹꼭 정성해야 갑니다. (이자영, 男·65)

㉞ 하로산또로 내하여오신 하르방당이 올썩니다. 돛과기광 술을 못가져대기곡 정성이 부족하기로 차자 보는 즈손이 드뭅니다. 축일당 장씨합망팡 혼부배간인디 합망이 돛과길 먹어부난 부정하덴 들로 갈라 좌정하엿썩다. (양공선, 女·40)

㉟ 하로산또로 내하여오신 정씨합망 본도한집님. 호적 차지 장적차지. 인물도 생척하 한집님, 제비는 쌀로 반곡 혼돌에 두·시번씩 축일로만 상을 받는 큰 낭, 큰 돌 초지한 한집님. (양공선, 女, 40)

ii) 뒷동산당

- ① 위치 : 칠전동에서 북서쪽으로 100m 떨어진 야산에 왕대나무 있는 곳.
- ② 祭日 : 축일 본향이며 어린이가 있으면 초나흘, 초이레, 14, 17, 27에 찾아감.
- ③ 祭物 : 메(3), 술, 생선, 과일
- ④ 本堂 : 어음리에 있다고 함.
- ⑤ 단골 : 진주 姜氏



〈뒷동산 당〉

- ⑥ 유래 : 어음리에서 신병구원차 제보자의 시아버지가 가지 갈라 왔다고 한다.
- ⑦ 당명 : 할망당
- Ⅲ) 조름에동산당
- ① 위치와 형태 : 신물동네에 있는 조름에동산. 현재 방송국 있는 자리에 넓고 반반한 돌이 돌 있었는데 그것을 재단으로 삼았다고 한다.
- ② 堂名 : 할망당, 하르방당
- ③ 祭日 : 할망당은 축일에, 하르방당은 오일 본향.
- ④ 祭物 : 메(3), 술, 생선, 과일
- ⑤ 本堂 : 널개 보름우이(판포)
- ⑥ 단골 : 이씨
- ⑦ 본풀이 : 소록발당 본풀이와 같다. 소록발당은 할망당만을 모시고 이 당에서는 둘 다 모시고 있는데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두 당간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할망이 부정한 돼지털을 만졌다는 이유로 살림을 갈라있기 때문이라 한다. 지금 이 당은 방송국이 들어서면서 폐당되어 없고 당시 당을 파괴한 사람은 병들어 죽었다고 한다.

2. 個人信仰(儒式個人信仰)

(1) 土神祭

- ① 직능 : 신년에 家内の 안녕과 재앙이 없기를 기원하는 제.
- ② 祭神 : 土地之神이며 지방에는 土地之神之位라고 씀.
- ③ 祭日 : 음력 정월에 택일하며 정월에 부정한 일이 있어 안되면 봄에 택일하고, 시간은 택일에 따라 다르지만 자시, 축시 사용.
- ④ 祭場 : 집 뒷마당이나 앞마당.
- ⑤ 祭官 : 축문장이

- ⑥ 祭物 :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환계(장담), 시루떡, 곤썰메(2), 좁쌀
 메(2), 갯, 과일,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 감주, 폐백(백지로 소지
 3장), 베와 민영 각각 1필.

⑦ 祝文

維歲次某年某月某期某日干支 官○○○敢昭告于
 土地之神 爲伏以宅主姓名○○○人之 力胡爲來哉異異之中吾家安吉來神文効
 子孫昌盛六畜繁息願神之休五穀登豐 神之休賽世求 報世永賽謹以牲幣醴齊黍
 盛庶品式陳之蕪干神饗尙

- ⑧ 기타 : 직배하며 송냥은 지붕에, 결명은 아래에 버림

(2) 맹감제

집안의 무사태평을 산신에게 빌어 기원하는 산신제로 정초에 택일하여 들에
 나가 여러 날 숙식하며 축문장이가 쓴 축문을 갖고 제를 지냄.

○ 축문

幼掌○○○敢昭告于

明堂后上大神之位

明堂向土大神之下伏以神位爲德由以好生司我 家宅賜福赦罪彌災致祥有求必應
 無感不通敢擇 吉日潛心默祝(所願成就) 伏願茲家庭中乾 命坤命子女各等保體
 善度若厄百穀登實學優登 土六畜繁盛商路大通疾病災殃縣亨舌大石動土 一切
 濟滅誠願成就萬事如意果次誠禮謹以牲幣 醴齊繁盛庶品式陳明蕪干神饗尙

Ⅲ. 宗 教

고산리 종교는 공인종교인 불교와 기독교가 있고, 유사종교인 미륵도와 천
 지대안교가 있다.

고산리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신도수는 전체 주민의 30~40%를 차지하고 있

으며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이고, 유사 종교인 미륵도나 천지대안교는 신도수가 50명 안팎이었다. 특히, 미륵도는 최근에야 고행원씨를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공인종교만을 다루겠다. 유사종교는 백록어문 2집에 자세히 조사되어 있으므로 생략한다.

1. 불 교

1) 월성사

- ① 명칭 : 대한불교 조계종 월성사
- ② 연혁 : 월성사란 이름으로 다른 곳에서 활동하다가, 고산은 1956년도 월봉스님에 의해 세워진 후 1962년 지금 건물로 새로 신축되었고 지금은 조홍스님(男)이 일을 보고 있다.
- ③ 위치 : 고산리 일주도로변 서쪽 마을 끝에 위치한다.
- ④ 시설 : 법당 가운데에 대웅전과 오른쪽에 기와로 지은 산신전이 있다.
- ⑤ 신도 : 신도수는 250~300명 정도이며, 이 중 남자는 50명 정도이다. 운영은 법회 때 신도들이 내는 시주로 운영되고 있다.

2) 수덕사

- ① 명칭 : 대한불교 조계종 수덕사
- ② 연혁 : 20년 전 월성사의 보살이었던 이계림씨(女·74세)가 지금 장소에 대웅전을 만들었고, 지금은 47세인 철중스님이 일을 보고 있다.
- ③ 위치 : 고산상고에서 200m쯤 칠전동쪽으로 올라간 곳에 위치한다.
- ④ 신도 : 70~80명 정도이며, 할머니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3) 천안사

高山里 學術調查報告

- ① 명칭 : 대한불교 법화종 천안사
- ② 연혁 : 1966년 윤봉천 스님이 만듬. 지금은 도선스님이 일을 보고 있다.
- ③ 위치 : 수월봉 밑
- ④ 시설 : 대웅전만을 갖추
- ⑤ 신도수 : 100~150명 정도이다

2. 기독교

1) 천주교

- ① 명칭 : 천주교 신창교회 고산공소
- ② 연혁 : 1955년 신창 본당에서 60평 정도의 부지에 공소 설치. 신부가 없으므로 주일마다 신창에서 신부가 와서 미사를 보고 있으며, 지금은 아일랜드 출신인 존 러셀(男·50세)씨가 일을 보고 있다. 1990년 2월에 본당으로 될 예정이다.
- ③ 위치 : 고산농협 앞
- ④ 시설 : 교회당이 있고, 사채가 두 채 있다.
- ⑤ 신도 : 교인은 약 500명 정도이며 여자가 남자의 2배를 차지한다.

2) 교회

- ① 명칭 : 대한 예수교 장로회
- ② 연혁 : 1916년 용수리 김기평씨가 전도를 받으면서 서관오, 위국진 등과 함께 기도회 모임을 시작했고, 1933년 목조로 예배당과 사택을 신축하고, 1964년 지금 모습 예배당을 신축했다. 지금은 87년도 부임해 온 목사 유승남씨(37세)가 일을 보고 있다.
- ③ 교인 : 200~250명 정도이고 일리에서 다수를 차지한다.

IV. 맺 음 말

이상에서 부분적이거나 고산리 신앙을 정리해 보았다.

고산리 신앙의 실태를 요약해 보면 유식부락제는 사라진 지 오래고, 주민들 대부분이 공인 종교를 믿고 있으며, 무식부락신앙인 당목잇당은 일정한 신도 수가 없이 비념당 구실만을 해 내고 있다. 이것은 생활의 변화와 무속신앙을 미신시하는 주민들의 태도 때문이라 생각된다.

조사기간 동안, 바쁜 중에도 협조해 주신 고산리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 재보자

- 유식부락제
고수학씨, 男, 78
고원준씨, 男, 60
- 무속부락신앙
변복영씨, 女
- 유식개인신앙
서태교씨, 男, 65
이학성씨, 男, 56

彙 報

◎ 教授動靜(1989. 3~1990. 2)

※ 1989년

- 3월 2일 : 尹錫山교수, 교환교수로 國民大 출강
8월 18일 : 崔圭一교수, 成均館大에서 文學博士學位取得
(논문제목 : 韓國語 語彙形成에 관한 研究)
8월 26일 : 安成洙교수, 中央大에서 文學博士學位取得
(논문제목 : 韓國近代 短編小說의 플롯 研究 試論: 「배따라기」, 「狂炎소나타」, 「운수좋은날」, 「날개」, 「巫女圖」를 중심으로)
10월 1일 : 崔圭一교수,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
文聖淑교수,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
安成洙교수,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
10월 4일 : 玄容駿교수, 교무처장에 취임
12월 10일 : 梁重海교수, 사범대학장 임기 만료

※ 1990년

- 2월 20일 : 尹錫山교수, 漢陽大에서 文學博士學位取得
(논문제목 : 素月詩 研究: 話者를 中心으로)
2월 23일 : 金泰琨교수, 中央大에서 文學博士學位取得
(논문제목 : 中世國語의 多義語 研究: 固有語를 중심으로)

◎ 學生會 主要日誌(1989. 3. ~1989. 12)

3월 2일 : 신입회원 환영회

31일 : 정기총회 - 회칙개정(국어교육 연구회가 국어교육학회로 명의 변경되어 「백록어문」을 발간하게 됨), 친구임원 이·취임, 결산·예산승인

4월 4일 : 과 체육대회

5월 10일 : 학회 교육시전

15일 : 스승의 날 기념 간담회

23일~6월 17일 : 4학년 회원 교생실습

8월 2일~5일 : 현지 학술조사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에서 회원, 교수, 동문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 배경, 방언, 민요, 설화, 신앙조사

9월 1일~2일 : 회원 협동 수련회

곽지 적십자 훈련장에서 유대강화와 협동정신 고양을 목적으로 실시

27일~10월 3일 : 강순회의 3학년 회원 13명 졸업여행

10월 6일 : 정기 총회 - 2학기 사업계획, 결산·예산 보고

11일 : 제25회 전도 중·고등학생 문학 백일장 개최

26일 : 졸업회원 환송 한라산 등반

28일 : 졸업 논문 발표회 (1차)

11월 11일 : 졸업 논문 발표회 (2차)

13일 : 임시 총회. 1990학년도 신입 정·부학생회장 선출

28일 : 분과 발표회

12월 6일 : 4학년 회원 사은회

12월 30일 : 고정상·전은영 회원 제대신문사 주최 백록학술상 가작 입선

(논문제목 : 고정상; 김동리 <황토기>론

전은영; 양반풍자의 전개 양상고)